

평 온 하 다

글/그림 - 안다연

2013. 제천간디학교 논설 작품



(어레스트 데뷔 무대 올라가기 전 사진. 많이 민망하네요. 호호호)

작가 소개

1998년 출생

2002년 도깨비어린이집 입학

2005년 고양자유학교 입학

2010년 첫 작품 '흥흥몽행 스캔들', '벚꽃이 질 무렵'

2011년 제천간디학교 입학

2013년 '아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 '비애, 비상' 작품

2013년 어레스트 멤버, 가을축제 '기대해'로 데뷔

2013년 '평온하다', '옥황선녀 오늘이', '신화, 알지?' 컴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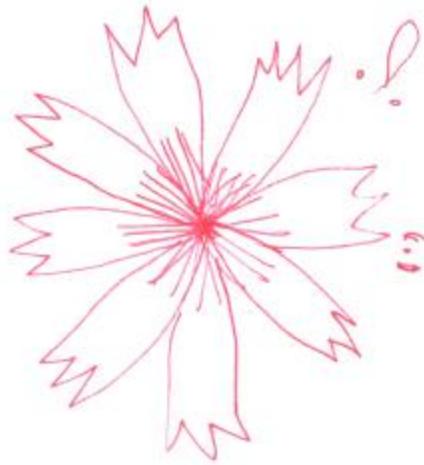
목차

- 프롤로그 - 인터뷰 (3)
- 1화 - 이사, 그리고 32평 아파트 (6)
- 2화 - 하루 일과 (16)
- 3화 - 날개 달린 창백한 갈 (26)
- 4화 - 마녀사냥 (45)
- 작품 소개 (46)
- 후기 (48)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지도교사 명민쌤께 이 책을 바칩니다.
2013. 10. 16

프롤로그.

인터뷰



“너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나가 고개를 들어 재범을 봤다. 재범과 눈이 마주치자 피곤해 보이는 두 눈이 갑자기 커져버린 하나였다.

“이 사건의 주인공들이나 주연들이 네 짝이었고 같은 반인 애들이었잖아.”

“한명은 아니었어.”

“편히 앉아. 난 그냥 인터뷰하러 널 만난거야. 심문하려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따지려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어.”

재범이 하나에게 사과를 건넸다. 붉은빛을 띄는 사과를 보던 하나는 그저 입을 다물었다. 그가 머쓱하게 웃으며 책상 위에 있는 컵에 오렌지 주스를 따라 하나 앞에 두었다. 그녀는 재범이 건넨 잔을 만지작거릴 뿐 입에 대지는 않았다. 재범은 녹음기를 켜고 미리 준비해온 공책을 펼쳤다. 거기에는 뽁뽁하게 연필로 적은 글씨들이 가득했다.

“일단 고맙다는 말을 할게, 이 일에 관련이 있는 애들은 웬만하면 다들 날 카로웠거든. 뭐 다들 나를 충격적이었던 거 같지만.”

재범이 하나를 보고 웃었다. 아직 낯인 거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음산한 느낌이 돌았다.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쓸었다. 등 뒤에 무언가 자신을 누르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럼 시작할게.”

“응.”

“곤란하면 패스해도 돼.”

하나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무슨 질문인지는 몰라도 긴장감이 들면서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볼펜으로 책상을 가볍게 건드리며 그가 입을 열었다.

“이 사건에 어떻게 관련이 되어있지?”

“우사마 집과 위아래 층이었어. 사마랑 같은 반이었고 형식이랑은 짝.”

“이 사건에서 네가 했던 일은?”

“난 그냥 반에 있던 상황을 우마한테 이야기 해줬고 우마가 질문했던 것에

대답을 했을 뿐이야.”

하나는 긴장해서 떨리는 제 목소리를 듣고는 깊은 한 숨을 쉬었다. 그런 그녀를 힐끔 본 재범은 무심한 말투로 질문을 이어갔다.

“질문이 뭐였는데?”

“사마가 평소에 어떻게 지내냐고.”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재범이 흥미가 생겼다는 얼굴로 공책에다가 무언가를 적어갔다.

“그리고?”

“그게 다였는데.”

“그럼 반에서 있었던 상황은 어떻게 설명했는데?”

“있던 그대로. 형식이 심한 말을 했고 결국 사마가 화나서 의자로 때린 거.”

글을 적던 볼펜이 멈췄다. 재범이 조금 놀란 얼굴로 하나를 쳐다봤다. 하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눈을 돌리다가 컵을 만지작거렸다.

“형식이가 먼저 시비 건 거야?”

“응. 소문 때문인지 백사마는 이어폰으로 매일 노래를 듣고 있었어. 주위에 있으면 노랫소리가 들릴 정도로 엄청 크게 듣고 있었는데, 나도 잘은 모르지만 내가 반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말다툼 중이었어.”

재범이 사과를 한입 물었다. 긴장이 조금 풀린 하나는 앞에 있던 주스를 마셨다. 유독 오늘따라 시큼한 맛이 강하게 나는 오렌지 주스였다.

“형식이가 먼저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었다고, 말리려고 했지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어. 다들 왜 형식이 편을 드는지 모르겠어. 소문이라는 게 무서운 건지 아니면 왕따라는 위치에 있는 애를 도와주면 자신도 따라 될 것 같은 두려움인지, 또는 형식이가 평소에는 암전했으니까 먼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들 그러는 건지, 아무도 사마 편을 안 들어주더라고. 말리

려는 애들은 많았지만 다들 자기한테도 불똥 튕까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더라. 솔직히 나도 그랬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

하나는 그 일들이 머릿속에서 생각나자 인상을 찌푸렸다. 엉망이 된 교실과 욕설, 그리고 우글거리며 비웃는 웃음소리와 같은 동급생 친구들.

“그리고 또?”

재범은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기분이 좋았다. 여태 인터뷰했던 아이들은 다들 건성건성 말하거나 이 일의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했고 아니면 시간에 쫓기며 말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정보를 별로 얻지는 못 했었다.

“내가 느낀 건 그게 다야. 그리고… 사마와 우마가 사이가 좋은 형제인지 잘 모르겠어. 주위 사람들 말로는 사마는 반항아고 우마는 착한 애라고 말해. 너도 알잖아. 사마는 좀 노는 애? 그런 무리고 우마는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잖아. 아, 사마가 학교에 없을 때 우마가 나에게 말했었어.”

“뭐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재범은 고맙다며 공책을 닫고 녹음기를 끌려고 했다. 이렇게 인터뷰가 짧았으면 학교에서 할 걸, 하며 내심 후회하던 하나는 재범을 멀뚱히 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럼 나도 질문해도 돼?”

“어? 응. 뭐 상관은 없어.”

하나가 오렌지주스를 원샷하며 묻자, 이런 상황이 처음인 재범은 그저 당황한 얼굴로 멍하게 그녀를 봤다.

“너는 왜 이 사건을 알고 해?”

재범이 녹음기를 끄려던 손을 멈추곤 말없이 하나를 쳐다봤다. 뻗은 손을 거두어 다시 무릎 위에 암전히 올려두었다. 재범이 회피하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자 눈치가 빠른 편인 하나는 그의 기복을 눈치 채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

지만 그의 대답을 들곤 멈추었다.

“일기장을 주웠어. 그래서 그냥 알고 싶더라고.”

“일기장?”

“그래.”

“그래... 하여간 오늘 고마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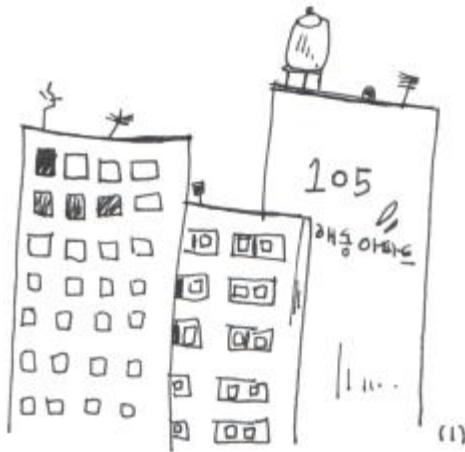
“잘 가.”

재범의 애매한 대답을 끝으로 녹음기는 꺼졌다. 하나는 짹짹한 느낌이 온 몸에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기분이 묘한 게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괜히 말했나?’와 ‘그저 이야기만 했으니까 괜찮아’, 그 두 생각이 하나의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생각났다.

한 1주일이 지났을까, 그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일을 빨리 잊었다.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다.

1화.

이사, 그리고 32평 아파트



김씨는 주말인데 옆집에서 울리는 소음 덕에 짜증이 올라온 상태에서 불쾌하게 깨어났다. 김씨는 고양이 세수를 한 뒤 잠옷에서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작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한 뒤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파란 박스를 들고 있는 한 소년이 보였다.

“아, 옆집이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옛돼 보이는 소년이 김씨에게 공손히 인사하자 그녀 또한 얼떨결에 같이 인사를 하고 말았다. 소년은 짐을 들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마도 그게 마지막 짐인지 더 이상 시끄러운 소리는 들리지 않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 집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아까 그 소년을 다시 불렀다.

“학생, 여기 학생만 사는 거예요?”

초면이라서 그런지 김씨는 자신보다 한참이나 어려보이는 소년에게 물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거 같았다. 소년은 그녀의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 대답했다.

“아뇨, 제 동생하고 같이 살아요.”

“부모님은요? 아직 학생 같은데 자취해요?”

소년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소년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2년 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아, 학생 미안해요.”

“괜찮아요.”

소년은 다시 밝게 웃어줬다. 이번에는 자연스러운 미소였다. 김씨는 무안해졌는지 수고하라며 집안으로 들어갔다. 괜히 신경이 쓰이는 게 영 답답했다. 김씨는 부엌으로 가 빵을 챙기고는 자연스럽게 TV의 앞으로 갔다. 소년은 김씨가 집안으로 들어간 후 이 아파트에도 소문이 빠르게 퍼질 거라고 예상했는지 한숨을 쉬었다.

친척들의 도움으로 학교가 가까운 아파트에 이사한 첫날인데도 동생이 보이지 않았다. 그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자 소년은 조금 화가 난 얼굴로

핸드폰을 그저 노려만 보았다. 동생은 친구의 집이 아니면 PC방에 간 것이 분명한데 거기까지 찾아가기에서는 자신의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소년의 기분은 매우 답답했다.

“학상, 이 물건은 어따 두는 거였더라?”

“이리주세요. 제가 옮길게요.”

소년은 커다란 박스를 들고 말하는 50대 중반의 남성을 보고는 눈이 커져선 그 곳으로 달려갔다. 소년이 박스를 잡아주자 한결 가벼운 느낌에 남성은 편했지만 소년에게 괜찮다며 웃어줬다.

“아니여, 내가 하는 일이다.”

“저기 작은 방이요. 감사합니다.”

소년은 다른 곳보다 비교적 친절한 이삿집센터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다. 더운 날씨인 만큼 더욱 고생하는 그들을 위해 시원한 음료수를 사러 슈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소년은 가는 길에 같은 반이었던 소녀를 만나게 되었다. 소녀가 먼저 아는 척을 했다.

“백우마!”

“안녕, 성경아.”

“우와, 오랜만이다. 여기 어떤 일이야?”

“이사 왔거든.”

소년이 자연스럽게 슈퍼로 향하자 소녀는 열심히 따라갔다. 소년은 가장 무난한 알로에 주스를 두병 샀다. 알로에 주스가 1+1인 이유도 있었지만 말이다. 혹시 몰라서 사이다도 한 병을 더 샀다.

“3800원이에요.”

“여기요.”

소년은 오전 원짜리 지폐를 내고 1200원을 거스름 받았다. 소년은 소녀에게 미안하지만 이삿집 때문에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며 작별을 고했고 소녀는 알겠다며 다음을 기약했다. 소년이 음료수를 사가자 이삿집센터직원들

은 고맙다며 웃었다.

“아니에요.”

소년은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나서는 남은 짐을 풀었다. 각자 방은 각자 알아서 풀라는 듯이 자신의 동생의 짐은 박스체로 두었고 거실이나 부엌을 정리를 했다. 소년은 다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역시 긴 무음의 발신음은 울리지만 상대방의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는다.

“안녕히 가세요.”

“그래, 잘 있어 학생!”

이삿집센터사람들이 사라지자 소년은 문을 닫았다. ‘삐리릭’ 하는 신호음과 함께 문이 잠겼다. 소년은 다시 핸드폰으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역시나 받지 않았다. 소년은 기다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급한 것은 짐이었다.

“아.”

잘 거라고 예상했던 자신의 형인 우마가 멀쩡히 깨어있는 채로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자 사마는 다급하게 신발을 벗었다. 당황해서 인지 신발이 잘 벗겨지지 않았다. 평소에는 훌렁훌렁 잘 벗겨지던 신발이었는데.

“너 아직 안 잤냐. 열두시인데.”

“그러는 너는 이제 오냐? 열두시인데.”

사마가 귀찮게 됐다는 표정을 지으며 두 손으로 마른세수를 했다. 은근히 화가 오른 우마의 말이 거칠어졌기 때문이었다. 평소에는 얌전하던 형이 짜증을 내자 덩달아 자신도 화가 나기 시작했다.

“내가 애냐? 잔소리 할 거면 닥쳐. 넌 그냥 나한테 신경 끄고 그냥 처자.”

“백사마!”

“네가 3분 먼저 태어났다고 형 행세하면서 지랄 떠는 거 알겠는데. 그냥 서로 신경 쓰지 말지?”

사마가 신을 벗고 오른쪽 방으로 들어갔다. 그 곳에는 아직 풀지 않은 박스들이 가득했다. 거칠게 방문을 닫고 문 앞에 무릎을 끌어안으며 앉았다. 형에겐 미안하지만 사과 대신 거친 말만 나오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그것도 한순간뿐이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대신 잔소리와 어른 행세를 하는 형이 귀찮고 짜증스러웠다.

널려있는 파란 박스들을 보면서 사마는 인상을 찌푸렸다. 박스에 각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적혀있지만 굳이 물건들을 꺼내기에는 귀찮았기 때문에 옷만 간단하게 갈아입고 우마의 방으로 향했다. 노크는 하지 않았다. 그냥 살며시 방문을 열었다.

“왜.”

막 자려고 했는지 불을 끄려다 갑자기 들어온 사마를 보고 당황한 얼굴로 서있는 우마가 있었다. 그를 보며 사마는 통명스럽게 말했다.

“같이 자.”

우마는 사마에게 씻으라고 눈짓으로 화장실을 가리켰다. 그러자 사마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마는 피곤한 얼굴로 침대에 앉았다. 자신의 방문 앞에서 멀뚱히 서 있는 사마를 보다가 침대에 풀썩, 하고 누웠다. 딱 봐도 짐 풀기가 귀찮아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옴이 분명한 사마의 모습에 우마는 한숨을 쉬었다. 아가의 다툼에 대해서 둘은 침묵했다. 더는 서로 피곤하게 싸우고 싶지 않았다.

“속옷 좀.”

“서랍 2번째 칸.”

사마가 씻으러 간 사이 우마가 침대에 누웠다.

서로 의지할 가족은 둘뿐인데도 계속 밖에서 만 노는 사마를 보고 내심 섭섭했다. 중학교 2학년까지는 자신에게 형, 형 거리며 잘 따르던 쌍둥이

동생이었는데. 그것마저도 과거의 추억으로 변하니 기분이 울적해졌다. 그가 커갈수록 방금처럼 다투는 일이 늘어나면서 우마의 피곤함과 걱정이 커져갔다. 갑자기 올라오는 이상한 기분이 속에서 울렁거렸다. 기분이 불편하니 속도 불편한 모양이다.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싱크대에 컵을 내려놓으며 달력을 보자 2주 뒤의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개학을 알리는 표시였다. 그것을 멀뚱히 바라보자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다.

집을 알아봐주고 생활비를 보내주시는 고모에게 무사히 이사를 마쳤다고 연락을 하지 못 했다. 고모가 이사하니까 올라오겠다고 말했었지만 우마는 연신 괜찮다며 걱정 말라고 했다. 그런 우마를 보던 고모는 이사를 마치면 꼭 연락을 달라고 했었다. 우마가 아차 싶었는지 인상을 찌푸렸다. 지금 연락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늦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사마가 우마를 발견하곤 질문했다.

“뭐하나?”

“고모한테 전화 못했어.”

“아침에 해. 지금 1시 넘었어.”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우마였다. 둘은 나란히 침대에 누웠다. 이번에도 역시 대화는 어색하게 끊겼다. 둘은 결국 사과와 화해의 말은 한마디도 없이 잠들었다.

“야, 일어나! 고모 전화 왔어. 쌍 빨리 일어나라니까?!”

으음, 우마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그런 우마를 무시하면서 전화기를 내밀었다. 소리치는 사마를 보고 우마는 자다 깬 상태로 고모의 전화를 받았다. 잠이 덜 깨서 그런지 목소리는 갈라지고 말투 또한 어눌했다.

“여보세요? 아, 고모. 죄송해요. 어제 전화했어야 됐는데.”

[아니야, 자다 깬어?]

우마는 다정한 고모 목소리에 무언가 울컥거렸다. 고모는 우마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다. 이사는 잘했냐. 반찬은 안부족하냐, 집 주변은 어떠냐, 물은 잘 나오냐, 햇빛은 잘 들어오냐, 고모는 마친 엄마처럼 세세하게 이것저것 물어봤다.

[얼굴 보고 싶네, 둘이 내려 올 거야?]

고모가 조심스레 물었다. 우마가 갈 수 있다면 꼭 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고모가 얼굴 좀 자주 보자며 웃었다. 몇 가지의 대화가 오간 다음 일 때문에 바쁘다고 나중에 연락하자며 끊었다.

“네, 조심하시고요.”

고모와의 통화가 끝나면서 우마가 느낀 감정은 쓸쓸함이었다. 친척들과 전화를 하고 나면 부모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단순한 상실감 이상이었다.

“다 했냐? 존나 오래하네.”

사마가 바나나를 먹으며 말했다. 그 바나나는 아침식사를 잘 챙기지 않는 우마가 밥 대신 먹기 위해 어제 장을 봐온 것이었다. 그걸 알든 모르든 신경 쓰지 않는 사마는 계속해서 바나나를 먹었다.

“오늘 뭐 할 건데?”

그의 질문에 우마가 졸린 얼굴로 작게 중얼거렸다. 여전히 잠에 취한 대답 같지도 않은 대답이었다.

“잘 거야.”

“그리고?”

“몰라.”

“싱거운 녀석.”

사마가 우마에게 바나나를 하나 던져주곤 자신의 방으로 갔다. 우마는 얼

떨결에 받아낸 바나나를 아직 졸린 눈으로 멍하게 바라보았다. 이런 와중에도 상황 판단을 할 만한 머리가 돌아가기는 했다. 바나나를 침대 옆의 책상에 올려두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잔뜩 몰려오는 졸음이 배고픔도 잊게 만들었다. 다시 우마를 보러온 사마가 이불 속에 감추어진 그를 보고 소리쳤다.

“야 백우마!”

“나 졸려, 너 혼자 알아서 짐 풀어. 난 잘 거야.”

우마가 자신이 하려고 했던 말을 먼저 가로채자 사마는 당황했는지 잠시 말이 없었다. 그가 조용하자 우마는 상황이 대충 정리됐다고 생각하여 다시 잠을 자려고 했다.

“너 약은 먹고 자!”

“맞다.”

대답도 응얼거림이었다. 영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 이불덩어리를 내려다 보던 사마가 갑자기 이불을 걷어내고 우마에게 헤드 락을 걸었다. 느닷없는 공격에 놀라 우마의 눈이 커졌다. 그런 표정에 웃음보가 터진 사마는 마구 웃어대며 팔에 압력을 더 넣었다.

“항복! 항복!”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두 손을 들어 항복 의사를 보이는 우마였다. 그럼에도 사마는 능청스럽게 떠들었다.

“뭐라고? 아, 나랑 같이 짐 풀어준다고?”

“야 그건 아니, 옥! 야!”

“와, 어릴 때는 내가 너보다 약했는데, 이제 내가 이긴다!”

그가 신나게 웃다가 팔에 힘을 풀자 우마는 겨우 벗어났다. 우마가 사마에게 저리 가라며 발로 밀어내고는 침대에 다시 눕자 사마는 포기하지 않고 그의 위에 훌쩍 올라탔다. 역시나 우마의 짜증이 바로 터져 나왔다.

“야! 무거워!”

“짐 좀 같이 풀어달라니까?”

“싫다고.”

“이것 봐. 매정해졌어.”

사마가 슬프다는 얼굴로 우마를 보자 우마가 졌다는 듯 두 팔을 위로 올렸다. 둘 만의 휴전을 알려주는 신호였다. 금방 만족스러운 미소가 사마의 얼굴에 번졌다.*

“난 조금만 도와주고 잘 거야.”

“그럼 또 괴롭혀야지.”

“잠 좀 깨고 갈 테니까 너 먼저 가.”

사마를 우마가 발로 밀자 사마가 알겠다면 방을 나갔다. 사마가 나가자마자 우마가 문 쪽으로 달려가더니 문을 잠가버렸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 당황한 사마가 문을 두드리자 우마가 웃긴 지 막 웃었다.

“백우마! 이 비겁한 새끼야! 이걸 반칙이지!”

“네가 어제 안 와서 이 집에 있는 모든 짐을 내가 풀었는데 나보고 또 풀라고? 그건 절대 싫거든.”

우마가 약 올리는 듯 말하자 사마가 문을 막 두드리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큰 소리가 들리자 당황한 우마가 똑 같이 문을 치면서 말했다.

“너 문 발로 차지?”

“아니거든. 그거 좋은 생각인데?”

“야, 하지마라? 이집 전세다?”

사마가 정말로 문을 발로 차자 결국 우마가 문을 열었다. 우마가 문을 열자 사마가 이겼다는 얼굴로 씩 웃었다.

“너 짐 별로 없잖아.”

“같이 하면 빨리 됨.”

“알았어, 대신 오늘 저녁은 같이 먹어.”

사마는 알겠다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우마를 거실로 밀기

시작했다. 반강제로 방에서 나온 우마가 더운 얼굴로 어제 조립한 선풍기를 찾았다. 그런 다음에 같이 짐을 풀었다. 여기저기 널린 박스를 보고 우마는 한 숨을 쉬었다. 일단 옷부터 풀었다. 겨울옷은 다른 곳으로 치웠다. 여름옷을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옷이 많아서 정리가 오래 걸렸다. 짐이 이동할 때 박스가 왔다갔다 거렸는지 옷이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하나하나 개기 시작했다.

“아, 귀찮아.”

“너건 데 내가 귀찮아하면 어찌자는 거냐.”

우마가 사마를 발로 꺾꺾 누르며 말했다. 그런 우마의 발을 더럽다고 치운 사마는 능청스러운 말투로 입을 열었다.

“음, 몰라. 네가 다하는 건 어때?”

“에이시, 나 안 해!”

우마가 사마의 옷을 바닥에 던졌다. 그러자 사마가 옷을 개달라며 다시 그 옷을 우마에게 던졌다. 빨래를 개면 성격이 보인다더니, 사마가 갠 옷은 엉망으로 되어있었지만 우마가 갠 옷은 반듯했다. 결국 보다 못한 우마가 빨래를 개기로 하고 사마가 다른 물건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백사마.”

“왜.”

“저기 있는 초록색 공책 뭐야?”

침대를 정리하고 있던 사마가 책상으로 걸어가더니 녹색 공책을 펼쳤다. 글을 몇 번 읽어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책장에 꽂으며 말한다.

“오답노트.”

“네가 그런 것도 가지고 있어?”

“뭐, 씨발 나는 수업도 안 듣냐. 아 몰라, 옷 정리나 빨리해.”

“야, 내가 도와주는 입장인데 그렇게 말 하면 어찌자는 거야.”

“미안. 하여튼 땡큐.”

둘은 남은 짐들을 정리했다. 얼추 치우고 나서는 박스를 정리하자 방안이 깨끗했다. 짐을 다 정리하자 1시정도 되었고 둘은 자장면을 시켜먹기로 했다.

“뭐 먹을래?”

“그냥 세트 시켜서 먹자.”

“그렇까? 뭐 먹고 싶은데?”

둘은 전단지를 훑어봤다. 세트는 3가지였다. 우마는 전단지를 보다가 썩 먹고 싶은 세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전단지를 살짝 보고는 말았다.

A(자장면+짬뽕+탕수육+군만두)

B(짬뽕2+볶음밥+탕수육+군만두).

C(쟁반 짜장+짬뽕+탕수육+볶음밥)

결국 우마는 다 괜찮다며 사마에게 선택권을 줬다. 사마는 세트를 읽어 보다가 가장 양이 적은 세트를 선택했다.

“나 탕수육 먹고 싶으니까 A로 하자.”

“다 탕수육은 있는데?”

“다른 건양이 많잖아.”

둘은 음식을 시키고 나서 씻었다. 드디어 이삿짐을 다 정리 한 것이다. 깨끗한 집을 보는 우마는 윈지 모르게 뿌듯함을 느꼈다. 우마가 집을 둘러 보는 동안 사마는 컴퓨터를 열심히 찾았다. 뜨거운 여름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반짝반짝 거리는 거실을 둘러보던 우마는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을 힐끔 쳐다봤다.

“컴퓨터는 어디 있어?”

“저기 작은 방에.”

“내 방에 두면 안 돼?”

우마가 거절의 의미로 고개를 흔들었다.

사마는 집 구조를 둘러봤다. 방은 총 3개로 작은 방 하나와 큰 방이 두개

있었다. 작은 방과 우마가 쓰는 큰 방 사이에는 화장실이 있고 사마 방 옆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다. 거실과 부엌은 이어졌고 베란다에 작게 세탁기를 둘 자리가 있어서 세탁기를 두었다. 둘이 살기에는 큰 집이었다. 베란다는 앞뒤로 2개가 있었다.

“이번 우리 집 몇 평이야?”

“32평으로 알고 있어.”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라면 꼭 차 보이는 집이었지만 두 분 다 돌아가신 지금은 집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하긴, 너도 컴퓨터는 써야 되니까 그냥 저 방에 두자.”

이 대화를 끝으로 둘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어느 순간 대화를 하는 시간이 짧아졌다. 대화가 짧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일단 둘은 서로 하는 일이 바쁜 것도 있으며 같은 반이 아니었다. 취미가 같은 것도 아니고 밥도 집에서 잘 안 먹다 보니까 둘은 점점 서로 멀어지기 시작했다.

사실 이 둘은 부모님이 계실 때에는 꼭 같이 밥을 먹었다. 점점 크면 다 같이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거라고 꼭 같이 먹어야 된다고 언제나 습관처럼 말 하던 부모님 덕분이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즐거운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었다. 그때 그 순간이 우마와 사마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우마와 사마도 시간이 갈수록 둘이 대화를 하지 않고 밥도 같이 안 먹게 된다는 것을 실감하지만 그런 것을 알고도 다시 친해지려 실천하지 않는다. 둘에게는 부모님에 빈자리가 정말 크게 남았기 때문이다.

중학교 때 암전했던 사마가 날카롭게 변하고 부드러웠던 우마가 약간 살기 있게 변했어도 그들을 잡아 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친척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우마와 사마는 겨우 풀라서 따로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친척들은 다 지방에 살았으니 가끔 통화하는 게 다였기 때문에 친척들은 그들

이 변했다는 것을 오랜만에 봐서라고 착각하곤 했다. 아니면 양

달라진 점을 모르기도 했다. 애들은 크면서 변한다는 듯. 먼 친척들 덕분에 우마와 사마를 잡아 줄 사람은 주위에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뿐이었다. 사실상 친구들도 우마와 사마가 변한 것을 느끼지 못 했고 선생님들은 이 둘에게 관심이 없었다.

우마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도 공부를 계속 했지만 사마는 삐딱선을 타고 말았다. 막내라서 그런지 유독 사랑을 많이 받던 사마였다. 사마는 삐딱선을 타다가 형에게 말려달라는 신호를 줬었다. 하지만 우마도 우마 나름 힘들었는지 사마를 잡아주지 못 했고 결국에는 사마는 형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사마가 삐딱선을 타면 탈수록 우마는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학교에서 비교를 당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둘은 같은 반이었고 우연히 짝이었다.

‘우리 학교에 쌍둥이가 있는데, 한명은 모범생이고 한명은 일진이래.’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

‘재네 둘 중에서 누가 모범생인데? 그냥 똑같이 생겼는데?’

‘야, 앉아 있는 품만 봐도 모르겠냐?’

‘그러네.’

징그럽게 똑같이 생긴 둘의 사이를 더 멀게 만든 것은, 남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소문을 과장을 내서 둘의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처음에 소문을 썩 신경 쓰지 않은 둘이었지만 다른 반이 되고 나서부터는 각자의 친구들에게 서로의 욕을 듣게 되면서 둘은 자신도 모르게 어색해졌다. 그리고 사마가 친구들과 밖에서 노는 게 대부분이었고 우마는 집안에만 있거나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갔다. 둘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아침에 학교를 갈 때뿐이었다. 우마는 일찍 자고 사마는 늦게 잤기 때문이다.

“백우마, 돈은?”

“TV앞에 내 지갑에 있어.”

“만 팔천 원이지?”

“응.”

우마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아팠다. 그래서 심장이 약하게 태어났다. 병원에서는 사마가 우마가 필요한 양분을 본능적으로 뺏어 먹어서라고 했다. 그래서 우마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약 한달 정도를 생활했다. 우마는 그런 약한 몸 때문에 병원에 들락날락 거리며 살다시피 했고 자신의 또래 친구들과 그 흔한 축구한번 제대로 못 해봤다.

이 내용을 7살 때 우연히 듣게 된 사마가 죄책감을 가질까나, 아님 아픈 형만 신경 써서 섭섭해 할까 부모님은 사마에게도 신경을 많이 썼다.

사마는 건강하다보니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반대로 몸을 무리하게 움직이기 힘든 우마는 얌전하게 있었다. 이리다 보니까 둘의 성격은 확실하게 구별됐다. 우마는 소심하고 말 수가 적은 그런 아이가 되었고 사마는 활발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밝은 성격으로 말이다. 이 둘은 어릴 적에 순수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못 하는 아이들이었다.

“상 미리 차려?”

“응, 나 씻는다?”

“응.”

그리고 형제애도 무척이나 좋은 둘이었다. 소심한 우마를 활발한 사마가 챙겼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소심한 성격에서 세심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변해버린 우마가 덜렁되고 활발한 우마를 챙기게 되었다.

그러다가 중2 여름방학 때 할머니가 위급하다는 소식의 전화가 왔었다. 늦은 시간이라서 부모님은 간단한 쪽지를 남기고는 빠르게 시골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다급한 마음에 급이 차를 몰던 부모님은 갑자기 멈추는 화물차에 그대로 박아버렸다. 부모님은 생명의 줄이라던 안전벨트도 소용없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둘의 반응은 무척이나 달랐다. 물론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집으로 들어온 경찰을 보고서는 이내 인정하고 말았다. 둘은 경찰이 하는 말을 듣고는 각자의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사마는 숨이 막힐 정도로 끙끙거리며 울었고 우마는 멍하게 앉아있었다. 장례식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철차를 치르던 우마와 탈진해 쓰러진 사마를 보고서는 다들 한 소리 했다.

‘우마, 재는 참 독하네요.’

‘우는 애가 사마예요? 사마 딱 해서 어찌나.’

‘그나저나 저 둘은 누가 데려가요?’

‘작은 고모가 데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우마 재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독한건지 딱한 건지...’

하지만 그런 어른들의 생각과 다르게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을 하는데 우마는 서럽게 울었다. 혼자서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여러 말을 중얼거렸다. 그런 우마를 사마는 옆에서 앉아 주웠다. 서럽게 우는 우마를 보며 어른들은 자신들이 생각이 짧았다며 우마에게 위로를 건넸다.

싫은 기억이 생각나버린 우마가 욕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다. 곳 부모님 기일이어서 그런지 요즘 유독 부모님이 보고 싶은 우마였다. 샤워를 다 마친 우마가 머리를 털며 욕실에서 나왔다. 거실에서는 바닥에 누워 선풍기를 쬐는 사마가 있었다.

“음식은?”

“몰라, 곳 오겠지.”

우마는 그런 사마에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서는 TV를 틀었다. 채널을 돌리던 우마는 한 오락프로에서 멈췄다. 오락프로에서는 수많은 연예인이 나와서 시시콜콜한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런 연예인들의 대화에 방청객들은 큰 웃음을 터트렸다. 우마와 사마는 그 프로를 시청하면서 푹푹 세는 웃음을 지었다.

오후 햇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1시 30분, 드디어 음식이 왔다. 푹, 푹,

푹. 누군가 크게 문을 두드렸다.

“배달이요.”

손님들이 초인종을 누르면 시끄럽다며 노크하라며 신경질을 내니까 알바생은 습관처럼 문을 두드렸다.

“네.”

사마가 문을 열고 알바 생에게 돈을 건넸다. 알바 생은 가격을 확인하더니 주머니에 돈을 구겨 넣었다.

“시원한 거 한잔 드세요.”

사마가 알바 생이 내려둔 음식을 가지고 TV 앞 책상으로 걸어갔다. 알바 생은 우마가 건네는 음료수를 마셨다. 푹 쏘는 탄산음료였다. 알바 생은 음료수를 마시고 나서 우마에게 말을 걸었다.

“감사합니다. 쌍둥이시네요.”

“네.”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버린 우마덕에 대화는 어색하게 끝났다. 탄산음료를 급하게 마신 알바생은 4시에 그릇을 찾으러 오겠다고 하며 문을 열고는 나갔다. 알바 생이 나가자 우마는 상 앞으로 걸어갔다. 이미 사마가 가 뜬어둔 음식들이 김을 내며 상 위에 있었다.

“맛있겠다. 그치?”

“응? 응.”

사마는 맛있겠다며 젓가락을 들었지만 우마 눈에는 그저 먹음직스럽지만 당기지 않는 음식들로 보였다.

“먹자.”

우마가 조용히 말했다. 군침을 삼키고 있던 사마는 냅다 먹기 시작했다.

후루룩.

면먹는 소리만 들렸다. TV에서는 아직도 연예인들의 시시콜콜한 대화가 오갔다. 면먹는 소리와 연예인들의 대화이야기만 거실 바닥들 돌자 어색함

을 이기지 못 한 사마가 입을 열었다.

“방학 얼마큼 남았어?”

“12일이던가, 그 정도 남았을 걸?”

“얼마 안 남았네. 방학숙제는?”

“다했어. 넌?”

“난 반 정도 했나? 그 정도 했을 거야.”

사마가 아무리 빼딱선을 땀어도 공부는 노력했다. 이유를 물어본다면 형에게 뒤처지기 싫어서라고 하는 게 문제지만.

오늘따라 사마가 얌전하자 우마는 신기했다. 평소에는 까칠하거나 퉁퉁대며 시비를 걸기 때문이다. 어제 일이 많이 미안했는지 사마는 얌전했다. 평소라면 욕을 하거나 친구들과 놀거나 우마에게 짜증을 내며 저 혼자 방으로 들어가 저녁을 먹을 때 까지 나오지 않았다. 어지 가니 어제 일이 정말로 미안한 거 같았다.

후루룩, 후루룩.

면먹는 소리만이 거실에 울렸다. TV에서는 둘만의 어색함을 달래주는 연예인 목소리가 계속 울렸다.

저녁을 간단하게 먹은 둘은 또 다시 어색하게 있었다. 일요일 밤 두 형제는 거실에서 TV를 키고서는 시간을 뺏기고 있었다. 우마는 TV 프로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고 사마는 계속 오는 연락에 손에서 폰을 떼지 못 했다.

[나오라니까? 놀자고.]

[지금은 좀 그래ㅋㅋ 새끼야 나 백우마랑 있음ㅇㅇ]

[아직 7시 20분임ㅋㅋ 백사마 네가 무슨 애도 아니고 강 와ㅋㅋ]

[야, 주말인데? 넌 가족하고 안 놀? 이참에 니 동생이나 놀아줘ㅋㅋ]

[가족은 무슨ㅋㅋ 다 TV만 봐서 심심함ㅋ 야 애들 다 옴 ㅇㅇ 빨리와]

[ㅇㅋ 말하고 감]

사마는 눈치를 살짝 보더니 입을 열었다.

“백우마.”

“응, 왜?”

TV의 프로를 열심히 보던 우마는 사마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사마는 계속 울리는 폰을 가리키며 말했다.

“애들이 놀자는데.”

“그래, 10시전에 들어와.”

“어, 갔다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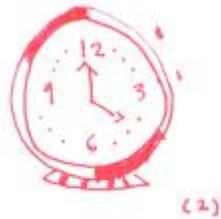
사마가 것 옷과 지갑을 챙기더니 현관에서 나갔다. 빠리릭, 문이 다치는 소리가 들리자 우마는 TV소리를 조금 키웠다.

“크다.”

혼자 있는 32평짜리 집은 쓸쓸함이 돌아다녔다.

2화.

하루 일과



둘은 결국 고모네로 가지 못 했다. 고모에게는 죄송하다고 연락을 했다. 그러자 고모는 아쉽지만 추석에 보자는 말을 남겼다.

둘이 이사한 집에 적응하는 동안 12일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 그리고 개학이라는 시간이 다가왔다.

“일어나, 백사마.”

우마가 사마를 살짝 흔들며 깨웠다. 의외로 잠귀가 밝은 사마는 우마가 깨우자마자 일어났다. 많이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보니 밤에 늦게 잔 것이 뻔했다.

“일단 세수라도 하고 와, 잠은 깨야지?”

“어... 알았어.”

사마가 눈을 비볐다. 그리고 화장실로 어기적거리며 걸어갔다. 화장실에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나니 잠에서 조금은 깬 거 같았다. 화장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가자 따뜻한 밥 대신 차가운 우유와 시리얼이 뿐이었다.

“아침은 이걸로 때우자. 내일은 내가 밥 차릴게. 아, 내일은 좀 더 잘 수 있어.”

사마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 한 집은 학교가 바로 앞이었다. 그러니 맘 편하게 늦잠을 잘 수 있는 조건이 됐다. 사마가 피곤한 눈을 억지로 뜨고 우마를 봤다. 이미 교복까지 입고 있는 우마였다. 사마는 재빨리 시리얼을 먹어치우고는 교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씻었다. 둘은 약간 낡은, 그리고 똑같은 신발을 신고서는 가방을 땀다. 그리곤 집에서 나섰다.

“네가 2반인가?”

우마가 사마를 보면서 말했다. 그러자 사마는 고개를 살며시 끄덕였다.

똑같은 둘을 보고 지나가다 힐끔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둘은 정말로 쿠키 틀로 찍은 쿠키처럼 똑같았기 때문이다. 다른 게 있다면 키였다. 사마 보다는 우마가 조금 더 컸다. 물론 그건 눈에는 그리 띄지는 않았다.

“학교 끝나고 뭐 있어?”

“애들이랑 놀걸? 개학 첫날이니까 스트레스 푼다고. 그것도 있고 오늘 경기도 있고.”

하여튼 별종들이야, 하며 사마가 부스스 웃었다. 아직도 잠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거 같았다. 조금씩 걸음이 이상한 거 보니.

“너 빨리 잠 깨. 넘어진다?”

사마는 알겠다는 대답을 중얼거렸다.

학교에 도착한 후 둘은 각자의 반으로 들어갔다. 우마가 교실 문을 열고서는 한동안 멍뚱히 서 있었다. 자신의 자리가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마가 자리를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저번 학기에 담임선생님이 단합을 위해서 자리를 많이 바꾸자며 한 달의 한 번씩 자리를 바꾼 탓에 더더욱 기억나지 않았다. 여태 앉은 자리는 생각났지만 마지막으로 앉은 자리가 기억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문 앞에서 있자 누군가 자신의 등을 툭, 하고 쳤다. 뒤를 돌아보자 자신의 친구인 비현이 있었다. 너무 반가운 얼굴이 보이자 우마는 방긋 웃었다. 둘은 키가 더 커졌네, 방학동안 왜 연락을 안 했냐며 크게 떠들었다. 비현은 우마랑 중학교 2, 3학년 그리고 올해까지 즉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다. 우마가 자리를 못 찾겠다고 하자 비현이 그것도 모르냐며 알려줬다. 둘은 자리를 정할 때 마다 앞뒤로 붙거나 아님 옆, 대각선으로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은 자연스레 서로의 자리를 잘 알았다.

“너 방학동안 뭐했어?”

“이사했어. 해동아파트로.”

우마가 이사한 소식을 알리자 비현이 가까운 아파트에 사니까 아침마다 만나자며 녀석 좋게 웃었다. 둘은 방학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했다. 왜 방학동안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둘은 마주보며 웃었다. 확실히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바쁜 것을 실감 한 둘이었다.

“그런데 사마? 네 동생. 개는 몇 반이야?”

“개는 2반.”

사마는 2반 우마는 7반이었다. 우마가 빨리 자는 편이라서 사마가 하루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우마는 이미 자고 있기 때문에 둘은 학교 구도상, 서로의 반 앞으로 가지 않는 이상 얼굴을 보기 힘든 그런 위치였다. 그래서 아침 등교시간이나 주말에만 간간히 얼굴을 볼 정도였다.

“너랑 반 많이 떨어졌네?”

“응, 나랑 학원도 다르게 다녀. 그래서 집에서 밥 먹을 때 말고는 보기 힘들어. 아마 나보다는 개네 친구들이 사마를 더 많이 볼 걸?”

“그래?”

“응. 방학 때는 그래도 같이 놀았어.”

우마가 가방에서 필통을 찾아서 공책과 함께 꺼냈다. 꼼꼼하게 필기가 되어 있는 걸 보던 비현이 입을 열었다.

“너는 왜 반장 안 해?”

“반장?”

“응, 너 잘할 거 같던데 후보만 나가도 안 한다고 하잖아. 우리 엄마가 물어보란다. 너 같은 애가 반장해야 된다고. 우리 반 반장한테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엄마가 매일 너 칭찬만 하더라고 너 반만 닦아보래. 역시 넌 내가 모르는 비리가 많아.”

“내가? 비리?”

그게 무슨 소리냐며 우마가 웃었다. 그러자 비현이 진짜라며 우마를 흔들자, 우마가 생각해보겠다, 하더니 인정했다. 자신에게는 숨겨진 비리가 많다면서. 물론 농담이겠지만.

우마가 대답을 얼버무리자 비현이 사마를 툭툭 쳤다. 우마는 잠시 생각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돌아다녔다. 내가 왜 반장을 못 했더라? 우마가 인상을 찌푸렸다. 정확한 이유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남 앞에서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딱히 리더십이라고 할 것도 없

는데다가 음, 병원도 가야하잖아.”

“아. 맞네.”

“나 바빠서 야자안하잖아. 그리고 반장 됐다고 챙겨주실 부모님도 없고.”

“야, 그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내용이 우울하게 넘어가자 괜히 기분이 이상해진 비현이 시끄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자 우마도 그러게, 라며 같이 웃었다. 그래도 씩씩한 기분에 잠시 입을 다물었다. 결국 둘 사이에는 침묵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미소를 짓고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침묵이었다.

“야, 근데 방학 숙제는 했냐?”

비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비현 같은 경우는 누나만 셋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수다스러웠고 말을 잘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감정을 잘 숨기지 못 했다. 그래서 비현이 말다툼을 할 때는 막말이 난무했다.

“나는 다 했지. 뭐 사실상 보충 때문에 숙제는 별로 없었잖아.”

“역시 모범생! 나는 다는 못했는데. 그나저나 애들은 왜 안 오냐?”

시계를 한번 본 우마가 어깨를 으쓱거렸다. 등교시간은 5분정도 남아있었다. 둘이 시계를 보는 동시에 반 뒷문이 열리면서 여자아이 둘과 남자아이 한명이 들어왔다.

“오, 쏘! 한쏘! 여우니~”

비현이 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그들도 비현에게 같이 손을 흔들어서였다. 그리고 비현과 우마 앞으로 걸어왔다.

“우와, 다들 오랜만이다!”

다들 반갑다며 눈을 퐁그랏게 뜬 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한여운, 남자들의 로망 청순가련 긴 생 머리카락에다가 예뻐장하게 생겼다.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남자아이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집이 엄해서 그런지 아직도 연애를 한번도 못 해본, ‘모태솔로’였다. 그래서 연애의 대한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안녕?”

우마가 인사를 했다. 그러자 한 여자애가 우마 옆으로 앉았다.

“응, 안녕?”

여운과 다르게 단발머리였는데 이 여자애의 이름은 김소중으로 키가 크고 늘씬했다. 소중이는 여자애들보다는 남자애들과 더 잘 노는 애였다. 그래서 소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소중을 보면서 남자애에 환장한 불여우라고도 뒷담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것, 신경 잘 안 쓰고 뒤끝 없는 쿨한 소중이는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겼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다.

“오랜만.”

그리고 옆에서 조용히 말하는 이 남자애는 이름은 한소운으로 여운이와 사촌지간인 남자애였다. 말은 논리적으로 잘 하고 잔머리를 잘 굴린다. 옷도 잘 입었고 얼굴도 귀엽게 생겨서 여자애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리고 건들지만 않으면 얌전하고 조용했다. 콤플렉스가 있다면 여자 같은 이름이었다.

“너네 오늘도 늦어.”

웃으며 인사해주는 우마와 달리 비현은 투덜거렸다(물론 처음엔 가장 먼저 손을 흔들며 격하게 반겼다). 그러자 우마 일행은 그런 투덜거림이 자연스러운 듯 넘겼다.

“그나저나 쏘(소중), 더 예뻐졌네?”

우마가 자신의 짝인 소중을 보면서 말했다. 가방을 풀던 소중이가 약간 부끄러운 표정으로 우마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뭐? 농담은.”

“역시 너희는 방학이 지나도 핑크빛이구나.”

“아, 이 씩씩한 기분.”

비현이 둘을 멍하게 보다가 말했다. 그리고 그 뒤를 소운이 이어서 말했다. 그러자 우마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고 소중이 어깨를 으쓱거렸다. 여운은 그

냥 아무 표정 없이 서 있었다.

“아, 그나저나 나랑 한쏘(소운) 자리는 멀어.”

이번에는 여운이 투덜거렸다. 여운의 자리는 창가였고 소운이 자리는 복도 쪽이었다. 나머지 일행은 가운데로 몰려있었다.

“넌 창가잖아.”

조용히 있던 소운이 입을 열었다. 그러자 여운이 투덜거렸다.

“그래도 다 같이 있는 게 좋아.”

“다 같이 있는 것도 좋지만, 창가는 안 지루하잖아. 가끔 다른 반 애들 체육 하는 거 구경하면 얼마나 재미있는데.”

소중이 가방을 정리하며 약간 오버해서 말했다. 그러자 여운이 질 수 없다는 듯 계속 말했다.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던 소운이 짜증내는 말투로 입을 열었다.

“아니, 그래도 수업 중에 몰래 쪽지도 돌리고 좋잖아.”

“복도 쪽이 더 안 좋으니까 그만.”

이들의 대화 패턴은 대부분 소중과 여운, 그리고 비현이 시끄럽게 대화를 이어가면 우마가 정리해주고 소운이 대화를 끊는 식 이었다. 그러면 아랑곳 하지 않고 금방 새 주제를 가져와서 이야기 하는 그들이었다.

“곳 썸 오시겠다. 자리로 가자.”

우마가 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여운과 소운이 각자 자리로 돌아갔다. 몇 분이 지나자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핸드폰을 걸었다.

-점심시간-

2학기가 시작되는데도 불과하고 정상수업으로 이어졌다. 방학 내내 게임만 열심히 했던 사마에게는 죽도록 지루한 수업이었다. 졸음을 꼭 참아내고 집중을 하자, 그 지켜왔던 오전 수업이 끝나고 천국 같은 점심시간이 왔다.

점심을 빠르게 먹은 사마는 반으로 와서 잠을 청했다.

“야, 축구하자!”

누군가 사마의 등을 툭툭 쳤다. 포만감에 저절로 오는 잠에 취해있던 사마가 낮선 느낌에 살며시 눈을 떴다.

“백사마, 축구하자고!”

“뭐라고?”

자다 깬 사마여서 그런지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졌다. 그런 사마의 목소리를 들은 친구는 인상을 구겼다. 사마는 첫날부터 축구는 무슨 축구냐며 거절했다. 사마가 눈을 비볐다. 반 안으로 들어오는 짹짹 햇살 때문에 저절로 눈이 찌푸려졌다. 후덥지근한 공기에 잠이 조금 달아난 거 같았다.

“좀 하자! 6반이 먼저 하자.”

“공은?”

“개들이 가져온대.”

자신에게 징징거리는 친구를 보며 사마는 몇 분 남았냐며 물었고 삼십분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축구를 하나며 다시 잘 준비를 했다. 그러다 몸이 빠끈하자 기지개를 폈다. 그리고 자신을 깨운 뻘뻘마른 남자애를 봤다. 여드름 보다는 주근깨가 많은 남자애였다. 살짝 귀엽게 생긴 이 남자애는 이름이 이지우로 사마와 우마, 그 둘의 소꿉친구였다.

“애들이 명수는 다 채웠어. 너만 오면 된다니까?”

“나, 점심시간에 조금이라도 못 자면 오후수업 내내 자잖아. 그럼 수업 때 집중 못 해.”

“네가 언제 수업 잘 들었냐? 빨리 빨리 좀 가자. 아니면 전반전만, 시간 없단 말이야.”

“그게 쉽냐?”

사마가 됐다며 지우를 밀었다. 그러자 지우는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사마가 투덜거렸다. 축구는 결코 전반전만 할 수 없는 게임이었다. 지우가 가자고

조르자 서서히 사마 주위로 남자애들이 몰렸다. 그러자 당황한 사마는 잠이 확 깨어났다.

“니들 뭐해?”

“가자니까? 애들 수부족해.”

키가 크고 머리카락이 살짝 긴 남자애가 사마의 어깨에 손을 톅, 하고 올렸다. 예쁘장하게 생긴 이 남자애는 정류하로 어릴 적에 아역배우를 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그 드라마가 크게 성공했고 그 드라마가 종영 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과하고 류하는 아직도 유명세를 탔다.

“가자니까? 백사마, 와 쌍 겁나 비싸게 구네.”

“에헤이, 방철용! 말 심하게 쓴다? 야야, 백사마 가자~ 응?”

그리고 앞에서 열렬히 침 튀기며 말을 하고 있는 두 소년은, 일단 까무잡잡한 철용이라는 남자애는 툭툭해도 할거 다 해주는 일명 ‘촌촌’거리는 남자애였고 반대로 새하얀 남자애는 알미운 짓을 많이 하지만 입지는 않는 남자애로 이름은 이승현이었다. 승현의 주위사람들은 승현에게 사기를 잘 친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 하는 아이였다.

“좀 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린 듯 쾅하게 서 있는 남자애, 이름은 한성운. 말 수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조용하고 과묵했다. 신기하게 아무 노력을 안 하는데도 불과하고 운동은 잘했다. 물론 체육 특기생은 아니다.

“전반전만이다?”

“그래. 얼른 가자.”

승현이 사마의 어깨를 꼭 잡고서는 밀었다. 사마는 그렇게 친구들과 운동장으로 나왔다. 6반 남자애들은 이미 몸을 풀고 있었다. 사마 일행은 포지션을 정한 뒤, 서로 흠어졌다.

“둘, 넷, 여섯……. 뭐야? 두 명 남잖아.”

사마가 인원수를 세다가 당황한 얼굴로 승현을 봤다. 그러자 승현이 조금

크게 말하며 시선을 돌렸다.

“으흥, 애들 부르다 보니 많이 불렀네?”

그러자 다른 친구들은 어이없어 하는 사마와 탄청 피우는 승현이를 보며 말했다.

“저 새끼 또 사기 쳤네.”

“아오, 저 밍상!”

“우리야 사람 많으면 좋지만, 아 진짜 웃겨!”

사마가 이내 한 숨을 쉬었다. 이미 운동장에 나왔고 몸도 풀었으니 한 판은 괜찮을 거 같았다. 그리고 사실 공부보다는 축구가 더 좋았다. 사마가 피곤하다고 중얼거리자 힘내라며 철용이 사마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러자 사마가 기지개를 폈다. 6반 애들이 먼저 공을 가지고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시작한 축구 시합을 여러 명의 사람들이 구경했다.

“백우마, 재 네 동생 아니야?”

소운의 말에 우마가 자연스레 운동장을 보았다.

“어? 맞네. 너 눈 좋다.”

사마를 한눈에 알아본 우마는 그저 멍하게 운동장을 봤다.

“그래? 그런데 되게 활발하다.”

“응, 나랑 다르게 건강하거든, 운동도 좋아하고.”

창문에 보이는 사마를 보며 우마가 말했다. 딱히 표정이 있는 얼굴은 아니었지만 씩씩한 표정이 섞여있었다. 그런 사마를 소운이 툭툭 쳤다. 그것이 소운 만에 위로방식인걸 아는 우마는 소운의 어깨의 팔을 올렸다.

“우리는 실 컷 수다나 떨자.”

“수다? 시끄러워.”

둘이 키덕거리며 창가에 서 있었다. 그러자 비현이 슬그머니 둘 뒤로 왔다.

“의외로 백우마는 사람이 많아.”

“깜짝이야.”

“자, 이제 인정하지시지.”

“그게 무슨 의미인데?”

“여자든 남자든 다 있던 말이야?”

비현이 우마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우마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 반응이 재미있지 비현이 더 다가갔다. 그런 둘을 못 봐주겠는지 소운이 슬쩍 끼어들었다.

“여기까지.”

“에이, 한참 재미있었는데.”

“나는 솔직히 좀 그랬어.”

정적, 갑자기 셋 사이에는 정적이 흘렀다. 셋은 갑자기 조용해지자 눈을 깜박이다 눈이 마주쳐선 크게 웃어버렸다.

“아, 미친.”

“갑자기 정적이야.”

그들이 크게 웃자 복도의 지나가던 아이들은 우마 일행을 봤다. 우마 일행은 그런 타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크게 웃었다. 정말로 즐거워보였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존중했다. 일명 ‘백 명 안 부러운 내 친구들’로 다툰 적은 있어도 아직까지는 싸운 적은 없었다.

‘그런데, 사마 점심시간에 안자도 괜찮을까?’

우마가 웃다가 창밖으로 보이는 사마를 보고 한 숨을 쉬었다. 이래저래 걱정되는 동생이었다.

사마가 피곤한 얼굴로 반으로 들어갔다. 전반전을 끝내고 빠르게 반으로 들어온 것이다. 등이 축축한 느낌에 사마가 인상을 찌푸렸다. 하지만 몰려오는 졸음에 잠을 청한 사마였다.

“백사마 일어나.”

눈을 감고 뜨자마자 일어난 느낌에 사마가 인상을 찌푸렸다. 그리고 제 짝

인 형식이에게 간단하게 고맙다고 했다. 땀이 식어 몸이 춥자 사마는 어깨를 쓸었다. 그래도 잠이 깨지는 않는 거 같았다.

“너희들 집중 잘해. 오늘 5교시만 끝나면 집 갈수 있다.”

라는 선생님 말에 정신 확 들기는 했지만.

모든 수업이 끝나고 하교시간이 되었다. 소중이 부반장이라 잠시 담임선생님을 만나러 갈 동안 우마 일행은 짐을 챙기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우마네 반으로 빠르게 뛰어왔다.

“백우마.”

“어?”

사마가 우마 반으로 들어왔다. 급하게 왔는지 가방문은 열려있었고 앞머리도 이리저리 흐트러져있었다.

“너 가방 문 열렸어.”

“아 진짜?”

“근데 왜? 폰으로 연락하지.”

“아.”

사마가 생각하지 못 했던 얼굴로 인상을 찌푸렸다. 그러더니 가방을 뒤지고 서는 어느 공책 하나를 꺼내 우마에게 건넸다.

“나 오늘 저녁연습 있어서 집에서 저녁 못 먹어.”

“그래? 이걸 뭐야?”

“보지 말고 가져가.”

“뭔데? 궁금하잖아.”

“그럼 보든지, 그거 이지우꺼야.”

“아. 그래?”

우마가 알았다며 공책을 가방에 넣었다. 그러자 사마가 이따 집에서 보자며 반을 나갔다.

“진짜 똑같이 생겼다!”

사마가 나가자마자 비현이 놀란 얼굴로 감탄을 내 뱉었다. 그러자 우마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다. 당연한 거 아니냐는 듯이.

“쌍둥이니까.”

우마 일행은 우마가 이사했다는 소식에 우마네로 집들이가리고 했다. 개학 기념으로 더 신나게 놀자며 계획을 크게 잡기 시작했다.

“아, 한여운 고모가 연락하래. 너 왜 연락 안 되냐면서 물어보시던데?”

“아 맞다!”

“그나저나 쏘는 언제와?”

여운이 전화를 했다. 월요일은 학원이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누구와 놀고 몇 시까지 있을 거냐고 물어보는 부모님 덕분에 짹짹매기 시작했다.

“나 줘.”

결국 소운이 전화를 하고 상황을 종료했지만.

“집들이 선물은 뭐 사지?”

“정석은 휴지지.”

“휴지, 그것보다 좀 더 쓸모 있는 거 없나?”

“휴지가 왜! 쓸모 있거든!”

“싸우지 말고, 선물보다는 밥값을 주는 건 어때? 우리 집에 먹을 거 없어.”

우마가 아차 싶었는지 말했다. 친구들이 집들이를 올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정말로 올 줄은 몰랐던 우마였다. 우마네 같은 경우는 아침 빼고는 밥을 잘 먹지 않았다. 점심은 대부분 학교에서 먹었고 저녁은 간단하게 먹었다. 밥을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우마는 과일 같이 간단한 것으로 대부분 때웠다.

“너희는 언제나 내 예상을 깨는구나.”

“뭐? 집들이 선물이야기 하다가 무슨 소리야?”

소운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러자 우마가 아냐, 하며 중얼거렸다.

“나 들릴 때가 있는데 거기 좀 들렀다가 가는 김에 장 좀 보고가자. 괜찮아?”

친구들이 어디 가냐며 물었다. 어느 반찬가게와 가정집을 방문한다며 미안하지만 부탁한다. 우마가 미소를 지었다. 눈이 반 정도 접히는 게 어찌보면 귀여워 보이는 우마였다. 우마를 제외한 다른 일행들이 궁금하다는 얼굴로 우마를 봤다.

“미안!”

“왔어? 가자.”

소중이 반으로 들어오자 우마 일행은 밖으로 나갔다. 학교에서 작은 골목으로 간 다음 5분 정도 걸자 조금 커다란 반찬가게가 나왔다.

‘성경반찬’

노란색과 검정색, 그리고 초록색이 섞인 간판이 보였다. 우마는 그 반찬가게로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지잉, 자동문이 열리고 반찬가게에서 나오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우마일행의 주변을 감쌌다. 약간 촌스러운 간판에 비해 생각보다 가게 안은 인테리어가 예쁘게 되어있었다.

“어머, 우마왔어?”

긴 생머리를 가진 인자해 보이는 인상의 아주머니가 우마를 보며 반겼다. 우마는 아주머니에게 공손하게 인사했다. 옆에 있었던 우마일행은 민망하다는, 그리고 어찌해야 모르겠다는 자세로 같이 인사를 했다. 아주머니는 기다리라며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다. 몇 분 뒤 어느 봉지를 들고 오는 아주머니였다.

“오늘은 8천원.”

“아, 감사합니다.”

“고맙기는 뭐, 남은 거 파는 건데.”

아주머니는 우마의 등을 두드리며 괜찮다 했다. 우마는 반찬가게에서 남은

반찬을 샀다. 보통 반찬가게에서 오래된 반찬은 팔지 않고 버리기 일 수었는데(먹을 수는 있었지만 상품가치가 떨어졌다.) 그걸 알게 된 우마가 싸게 사갔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또 와!”

우마 일행은 다시 반찬가게를 나왔다. 다들 우마에게 무슨 반찬이 있냐며 봉투를 열어봤지만 비현 혼자 가웃거리며 반찬가게를 뒤돌아 봤다.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

“성경이네 부모님이라서 그래.”

“뭐? 그 불 여시 부모님이야?!”

“응.”

우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비현은 경악했다. 저런 착하시고 인자하신 분들에게 그런 애가 어떻게 나오나며.

성경이는 비현과 우마 전 반으로 흔히 불여우라고 불리는 아이였다. 여자 친구들은 별로 없고 남자친구들이 많았다. 물론 딱 봐도 꼬리치는 행동에 여자 친구들은 다들 성경을 밀어내거나 따를 시켰다. 물론 예쁘장하고 애교도 많아 남자애들에게는 인기가 많았지만.

“대박이다. 저런 착한 부모님께 그런 딸이 나오는 구나.”

“뭐, 예외는 있는 법이니까.”

“백성경 말하는 거야?”

“한쏘도 알아?”

“중3때 같은 반.”

반찬가게를 나와 상가 쪽으로 건다가 어느 빌라 앞으로 온 우마 일행이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자 어두컴컴한 복도가 나왔다. 우마가 몇 걸음 걸어가자 주황색 센서불이 켜졌다.

“금방 갔다 올게. 여기 있어. 괜찮지?”

“그래.”

“갔다 와.”

우마가 어느 집 문을 두드리고 반찬을 주며 몇 마디를 나누더니 바로 우마 일행에게 왔다. 그 많던 반찬을 다 드렸는지 우마 손은 빈손이었다.

“오늘 할머니만 계시는 날이라서, 미안. 이제 장보러 가자.”

“여기 누구 집이야?”

“미소라고 내가 그냥 반찬주고 드리고 청소도 하고 가끔 같이 놀고, 뭐 그냥.”

“봉사?”

“어, 뭐. 그거 비슷하겠다.”

역시, 넌 착하구나? 여운이 우마를 보며 말했다. 그러자 우마가 부끄러운 듯 불이 붙어졌다. 그러자 그걸 또 캐치한 비현이 놀리고 난리가 났다.

“하지 마!”

“장이나 보자. 시끄러.”

뭐, 소운덕분에 조용해졌지만 말이다.

“너 뭐해?”

“연락이 안 와. 쌍.”

“누구?”

“누구긴, 백우마.”

사마가 목이 마른지 물을 별컹별컹 마셨다. 그러자 좀 갈증이 해소 된 기분이었다.

“아, 오늘 지 친구들이랑 노나?”

“그런가보지. 야, 감독님이 부른다.”

“어.”

사마가 인상을 찌푸렸다. 방금 쉬었는데 바로 운동하라니, 재미는 있지만 힘이 들기 시작하는 사마였다. 감독님이 부르자 살살 뛰는 걸음으로 감독님 앞에 섰다. 사마 말고도 다른 부원들도 힘이든지 다들 헉헉거리며 서 있었다.

“다 왔냐?”

“네? 아뇨, 승호랑 이준이 화장실 갔다 온데요.”

“그래? 애들 오기 전에 미리 말할 테니까 이따 주장이 전해주고, 오늘 학부모님들이 밥 사주셔서 밥 먹고 바로 헤어지자. 그 전에 운동장 전속력으로 3바퀴.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놈들은 한 바퀴 더 추가다. 아, 박승호랑 강이준이 끝까지겠네. 뛰어.”

감독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축구부 부원들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사마는 얼떨결에 같이 막 뛰었다. 숨이 막 차기 시작했지만 이게 묘미 아니냐며 웃음을 꼭 참고는 달렸다. 자신 옆에서 열심히 뛰며 힘들다며 투덜거리는 지우를 보며 또 한 번 웃었다.

“먹어라. 그전에 인사.”

“잘 먹겠습니다!”

우렁찬 소리가 들리자니 다들 허겁지겁 먹기 시작한다. 사마는 밥을 천천히 먹었다. 밀가루 음식을 잘 소화 못 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거였는데 주위사람이 워낙 빨리 먹다보니 밥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 걸로 보였다.

“너 또 천천히 먹는다?”

“영. 소화 안 돼.”

사마의 이상한 대답에 지우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영이 뭐냐, 영이. 지랄하지 마. 그러자 사마가 으쓱거리며 밥을 더 먹었다. 메뉴는 칼국수. 밀가루라 그런지 더더욱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었다. 같은 밀가루 음식인 라면은 아주 잘 먹었지만.

‘맛은 있는데 이따가 체할 거 같은데.’

사마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면을 먹었다. 이따가 집으로 가서 밥을 더 먹는 걸로 하고 칼국수는 적당히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마는 숟가락을 내려 뒀다.

“음식이 안 맞니?”

어느 학부모님이 묻자 사마가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배가 불러서요.”

사마는 핸드폰을 키고는 문자가 왔는지 확인했다. 지금 시간은 8시. 집으로 가면 적어도 8시 40분. 사마가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문자가 왔다.

[너 몇 시에 들어와?]

우마가 보낸 문자에 사마가 무표정으로 답장을 보냈다.

[9시~10시.]

[알았어.]

사마는 주위에서 아직도 먹고 있는 친구들을 봤다. 그들이 빨리 먹길 바라며 핸드폰 게임을 시작하는 사마였다.

3화.

달
개
달
린
창
백
한
말



사마는 답답한 느낌에 인상을 찌푸리며 달렸다. 누군가 사마를 꼭 잡고는 안 놔주는 거 같았다. 무언가 몸이 무거워진 느낌이라고 설명 하는 게 더 가까운 거 같았지만 말이다.

그가 허공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그 앞에 또 다른 사마가 나타났다.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우마다. 사마는 무언가 자신을 죽이려는 듯한 느낌이 들자 다급하게 우마를 불렀다. 하지만 우마는 사마를 힐끔 보더니 등 돌려 자신의 친구들에게 걸어갔다. 그러자 사마는 속에서 불타는 느낌이 들었다. 맵고 뜨거운 국물이 속 안에서 뛰어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 사마는 괴로운 얼굴로 다시 달려갔다. 이번에는 지우와 그 외 친구들이 보였다. 지우가 사마에게 달려왔다. 그런데 우마가 나타나 지우를 대리고 사라졌다. 그러자 불안해진 사마는 우마와 지우가 사라진 곳으로 빠르게 달렸다.

이번 장소는 병원이었다. 우마가 창백한 얼굴로 검사를 받고 있었다. 우마 옆에는 하얀 괴물이 서 있었다. 그 괴물은 키와 입이 아주 컸다. 괴물의 입에는 누런 이빨과 하얀색 가운데들이 넘쳐났다. 괴물은 우마에게 친절하게 웃어줬다. 하지만 우마는 그 괴물을 무서워한다.

그런 우마를 본 사마는 달리던 걸 멈췄다. 하얀 바닥이 움직이기 시작하니 사마의 신발을 잡더니 신발을 먹기 시작했다. 사마는 그런 바닥을 보며 기겁했다. 도망가려고 발음 움직이자 움직이지 않았다. 바닥은 그의 신발을 더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그는 소리를 지르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사마는 우마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사마와 우마 사이에는 투명한 유리벽이 생겼다. 사마는 그 유리벽을 향해서 외쳤다. 하지만 나올 리가 없는 목소리였다. 사마는 울면서 우마에게 소리쳤다. 그 순간 우마의 눈이 살벌하게 변했다. 그런 우마의 눈을 본 사마는 시선을 피하려고 고개를 돌렸다. 그런 사마를 본 우마는 시선을 억지로 마주치기 시작했다. 결국 두 눈은 서로의 눈을 쳐다보게 되었다. 우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마를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입모양이었다.

하지만 사마의 귀에는 입모양 분명한데 우마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리기 시작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마는 모르겠다는 얼굴로 멍하게 서 있었다. 그러자 우마의 표정은 모르는 척 하지 말라는 듯 붉어졌다. 이번에는 똑똑히 우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 때문이야. 내가 여기 있는 건 너 때문이야!’

사마는 귀를 막으려 손을 들었지만 무언가 손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위아래서 누군가 누르는 것처럼 손은 허공에 멈추고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도, 나도 놀고 싶어! 여기 무서워!’

우마의 물기 있는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가 평소에 듣던 다정한 목소리라서 그런지 더 괴로운 사마였다. 하얀 괴물이 어디선가 또다시 나타나서는 우마를 안아줬다. 그러자 더 커지는 우마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사마를 이리저리 찔렀다.

‘왜 그랬어, 왜, 왜, 왜, 왜, 왜! 그렇게 살고 싶었어?’

하얀 괴물이 사마의 목을 잡고는 위로 올렸다. 신발을 먹던 바닥은 사라졌다. 병원과 투명한 유리벽은 사라진지 오래였고 병원은 이미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 공간이 되었다. 괴물이 일어서자 끝없이 위로 올라갔다. 바닥으로 느껴지는 곳이 점으로 보였다.

‘너 때문에 힘들어. 제발 사라져, 부탁이야.’

우마의 목소리가 울리자 괴물은 사마를 목을 놓아버렸다. 2, 3초 동안 붕 뜨는 느낌이 들더니 동시에 툭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사마는 꿈에서 깨어났다.

“뭘야.”

눈을 뜨는 동시에 침대에서 떨어졌는지 사마는 아픈 허리를 잡았다. 허리에서 뜨거운 느낌이 드는 것 보니 아마도 허리를 삐끗한 거 같았다. 일어서

기가 어려웠던 사마는 잠시 누워있었다. 바닥이 시원해서 그런지 허리에 오는 통증이 덜 한 거 같았다.

“아오 씨, 남자는 허리가 생명인데.”

자다 깨서 그런지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있었다. 그는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침대에 기대서 겨우 앉은 그는 갑자기 바지위로 떨어지는 물을 보고 놀라서는 얼굴을 만져봤다. 심하게 흐르는 땀도 있었지만 눈에서 흐르는 눈물 덕에 더 놀라는 사마였다.

‘무슨 꿈이었지?’

생각나는 거리면 미친 듯이 달린 자신과 하얀 괴물과 우마? 그리고 부분 부분 기억나는 장소들. 아무리 꿈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도 꿈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 사마였다. 단지 꿈이 너무 무서웠던 것 빼고는.

“몇 시냐.”

거의 한 숨 섞인 혼잣말을 내 뺀 사마가 핸드폰을 찾았다. 침대위로 더듬더듬 손을 움직이며 겨우 찾은 핸드폰을 보는 그의 얼굴은 구겨졌다.

[am 6:23]

“뭘야, 여섯시야?”

다시 자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깨어있기에는 하루 종일 피곤해서 힘들 시간이었다. 자는 것 보다는 씻는 게 더 효율적일 거 같았던 그는 귀찮게 됐었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허리가 쿡쿡 쑤시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허리를 두드리며 옷장으로 걸어갔다.

“아. 더럽게 아파.”

사마는 샤워할 옷가지를 챙기고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으악!”

우마는 놀란 얼굴로 소리를 질렀다. 어두운 거실에 사마가 누워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야.”

사마의 비명소리에 멍하게 게임을 하던 사마도 덩달아 같이 놀랐다. 놀라는 바람에 허리를 움직였더니 갑자기 쭈셔오는 허리에 인상을 찌푸렸다.

“뭐긴 뭐야! 너 왜 거기 있어?”

정말로 놀랐는지 우마는 주저앉았다. 그런 우마를 보던 사마는 무심하게 고개를 돌리더니 입을 열었다.

“일찍 깬어.”

“아오, 그럼 불이라도 키고 있던가.”

“전기세.”

“지가 그걸 언제 신경 썼다고.”

우마가 붕 떠버린 머리카락을 꺾꺾 놀렸다. 그래도 내려가지 않는 머리카락이었다. 우마는 그런 머리카락이 신경 쓰이는지 씻는다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사마는 그런 우마를 뻔히 쳐다봤다. 아침에 꾸었던 꿈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속에서 답답한 느낌에 갑자기 울컥거렸다.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고 싶은 날이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사마는 핸드폰을 집어 던졌다. 소파에 푹 하고 떨어진 핸드폰을 보던 사마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다. 갑자기 뜨거워지는 속 덕분에 시원한 무언가를 마실까 하고는 냉장고를 열었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우유를 꺼내 마셨다. 차가운 우유가 속 안을 내려가자 비린느낌이 올라왔다.

“아, 속 버렸다.”

우유가 속에서 트위스트 춤을 추는 느낌이 들었다. 사마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이제 겨우 7시가 된 시계를 보고서는 TV를 켰다. TV속에서는 약간 다큐멘터리 쪽에 가까운 아침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그는 방송을 틀어놓고는 의미 없이 멍하게 쳐다봤다. 눈은 TV속에 있겠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었다. 오늘따라 정말로 학교가 가고 싶지 않은 날이었다. 꿈자리가 너무 사

나왔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맴돌고 있었다.

‘너, 때문이야!’

사마는 갑자기 들리는 목소리에 확, 뒤를 돌았다. 뒤를 돌아 거울이 보였다.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는 시선들 돌렸다.

우마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사마는 TV를 끄고 자신의 방으로 갔다. 방에서 교복으로 갈아입고는 거실에 있는 거울 앞에 서서 교복을 정리했다. 그런 사마 옆에서 우마는 머리에서 물이 떨어지는 수건으로 머리를 탈탈 털고 있었다. 그 상태로 냉장고로 걸어가 밀반찬을 꺼내 식탁에 두었다. 우마가 사마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사마가 수저와 물을 식탁에 두었다.

[am 7:23]

“배고파.”

속이 비린 느낌은 비린대로 배는 배대로 배고프고, 사마는 우마를 재촉했다.

“조금만 기다려.”

우마는 시계를 힐끔 쳐다봤다. 등교까지 약 한시간정도 남았다. 그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고서는 냉장고에서 햄과 계란을 꺼냈다. 그리고는 프라이팬에 계란과 햄을 굽기 시작했다. 지글지글 거리는 소리와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하자 사마는 자신도 모르게 군침을 삼켰다.

“많이?”

우마가 밥그릇에 밥을 푸며 말했다. 사마는 손가락으로 오케이 표시를 하더니 식탁에 앉았다. 어느새 식탁에는 밥이 다 차려졌다. 둘은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일찍 시작 된 아침은 느리게 마무리 되었다.

사마는 일교시가 시작이 된 지금 기분이 불쾌했다. 수업은 집중이 안 되고 선생님의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분산되었다. 그는 제 옆에 앉은 형식을 힐끔 쳐다보았다. 형식은 수업을 아예 포기했는지 책상에 엎드려있었다. 사마는 아침에 자신의 일행들이 해 준 이야기를 생각했다.

‘너 박형식하고 싸웠냐? 재 네 욕 존나하더라?’

‘뭔지 몰라도 좋게 풀어.’

사마는 습관적으로 연필 끝을 물었었다. 집중할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던.

형식과 자신은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 별 접촉도 없었고 그저 길에서 만나면 인사정도만하는 사이였다. 서로 깊게 알거나 악감정을 가질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사마는 괜히 자신의 일행들이 해 준 이야기 때문에 신경질나기 시작했다.

‘신경 끄자, 화내면 내가 지는 거야.’

사마는 검정색 연필로 칠판에 있는 내용을 공책에 써내려갔다. 너무 힘을 줘서 일까 연필이 뿌러졌다. 그게 제 모습 같았던 사마는 긴 한숨을 쉬고서는 필통에서 샤프를 꺼냈다.

사마는 갑자기 밀려오는 졸음에 인상을 찌푸렸다. 아침에 괜히 일찍 일어난 건가? 하며 한숨을 내 뱉었다. 그러자 또 아침처럼 속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느낌에 눈을 감았다. 아침부터 이것저것 안 풀리는 느낌에 짜증나고 속이 답답해졌다.

사마는 속으로 참자, 참자하며 중얼거렸다.

우마가 자신에게 쇼핑백을 건네는 친구들을 보고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다.

“그거 반찬들이야.”

우마가 놀란 얼굴로 쇼핑백을 열었다. 거기에는 삼색나물과 예쁜 과일들이 들어있었다. 우마가 감동받은 얼굴로 그들을 보다 그들이 썩스럽다는 듯 얼굴이 붉어졌다.

“거기 아이스 팩 들어있어서 안상할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

소중은 더운 여름 날씨를 보며 말했다. 아이스 팩을 여러개 넣었지만 나물이 워낙 잘 상하기 때문에 학교가 끝날 때까지 멀쩡할지는 장담은 못했었다. 교실은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틀었기 때문에 공기만 좀 써늘하지 보통 가정집처럼 시원하지는 않았다.

“너 이제 3일 뒤면 기일이라며.”

“알고 있었구나.”

우마의 말투가 조금 쓸쓸한 어투로 변하자 다들 우마 주위에 서 어깨를 두드려줬다. 묵언의 위로가 느껴진 우마는,

“고마워.”

친구들의 따뜻한 배려에 결국 울고 말았다.

-점심시간-

우마가 부운 눈을 꺾꺾 눌렀다. 그런 우마를 보던 비현이 그래도 안 사라진다면 크게 웃었다. 그런 비현을 노려본 우마는 공책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정신 사나워. 먹든지 쓰든지 둘 중 하나만해.”

소운이 우마의 어깨를 툭툭치며 말하자, 우마는 웃으며 미안하다고 했다. 장볼 시간이 오늘 밖에는 없어서 미리 적어야 된다고 했다. 의외로 악필인 우마의 글씨체를 보던 소운은 다시 밥을 먹었다.

전(동태, 고지, 버섯), 과일, 생선, 나뭇잎, 밤, 대추, 복어, 떡, 무국, 곶감, 조기.
 전은 계란, 동태, 맛살, 파, 오징어, 버섯, 파. / 제철과일 복숭아, 포도, 수박, 참외.
 나뭇잎 애들이 준 것. 대추나 밤은 마트에서 사기. 떡은 부모님이 좋아하던 곶보.
 술???? 그리고 잡채(반찬가게!).
 복어랑 곶감, 조기도 마트. 무국 재료는 소고기랑 무. 무국 레시피 찾아보기! 초 찾기.
 8월 24일, 사마에게 잊지 말고 오라고 하기. 학업은 미리 연락하기. 이번엔 고모 못 오신다고도 알려주기.

“너 술은 어떻게 살 거야?”

비현이 우마의 공책을 보며 말했다. 그러자 우마가 저번에 고모가 보내주신 청주가 있다며 괜찮다고 했다. 비현은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연락하라며 웃었다.

급식 실에 있는 시계를 힐끔 쳐다본 우마는 남은 급식을 꾸역꾸역 입에 넣었다. 사마가 자기 전에 만나야했기 때문이다.

“뭐하냐?”

사마가 교실에 모여서 웅성거리는 남자애들을 보며 말했다. 오늘따라 너 무 피곤한 나머지 말투는 신경질적이었다. 그런 사마의 말투에 기분이 상한 그들은 별거 아니라며 지들끼리 웃었다. 갑자기 드는 소외감에 그가 인상을 찌푸렸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그였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의 표정이 굳어있자 왜 정색 하나며 그에게 따지는 듯 물었다. 그러자 그는 아니라며 자신의 자리로 가서 앉았다. 그는 옆드리고 잠을 청했다.

사마가 잠이 들고 3분정도 지나자 우마가 사마 반에 들어왔다. 우마를 본 지우가 우마 곁으로 걸어갔다.

“웬일이야? 백우마.”

지우가 다가오자 우마가 웃으며 인사했다.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지우였기 때문이다. 우마는 지우에게 어느 쪽지를 건네며 사마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지우는 알겠다며 쪽지를 받았다. 그러자 우마가 고맙다며 교실을 나갔다. 우마가 보이지 않자 지우가 쪽지를 열었다.

[알뜰 같이 장 보자.]

“기분 나쁜 놈.”

지우의 중얼거림이 교실 한 쪽에서 울렸다.

2일이라는 시간은 우마에게는 빠르게 반대로 사마는 길고 느렸다.

사마와 우마는 1, 2교시 수업을 듣고서 조퇴했다. 내일 부모님 기일이라서 오늘부터 준비해야했기 때문이다. 원래라면 내일부터 해도 되는데 올해는 고모가 사정이 생겨서 올라오지 못 하게 되었다. 그래서 둘은 처음으로 단 둘이 기일을 보내본다.

미리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둘은 재료를 다듬었다. 사마는 귀찮은 건지 막 투덜거렸다. 우마는 옆에서 말없이 재료를 다듬었다.

“그만 좀 투덜거려.”

결국 짜증이 난 우마가 뭐라 하자 사마는 핸드폰을 가져와서는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었다. 그러자 한결 나아진 기분이 든 사마였다. 우마는 사마를 힐끔 쳐다보다 이내 다시 재료를 손질했다.

우마는 몰랐지만 사마 머릿속에서는 요 며칠째 느끼는 소외감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다. 친구들과 딱히 싸웠던 적이 없었다. 그 악몽 같았던 꿈을

꾸고 나서부터 뭔가 다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러는지 사마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재료가 얼마정도 다듬어 졌다. 우마는 전을 부쳤다. 생각보다 예쁘게 되는 전 모양을 보며 사마가 신기하다고 했다. 우마는 생각보다 손제주가 없는 아이였다. 둘은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었다. 음식을 만들면서 이것저것 주워 먹은 둘이라서 그런지 점심밥은 따로 먹지는 않았다.

카톡.

음식을 만들고 나서 뒷정리 중이었던 둘은 갑자기 어디선가 울리는 소리에 동시에 거실 쪽을 봤다.

“내꺼가보다.”

사마가 치우고 있었던 접시를 내려두더니 거실로 나갔다.

[놀자ㅋ]

[뭐?ㅋㅋㅋㅋ]

[이런 날에 놀아야함ㅋㅋ]

[넌 365일 나 놀고 싶어 하잖아]

[몰라 컨택(PC방 이름)으로 ㄱㄱ]

사마는 대충 정리된 부엌을 한번 둘러봤다. 이 정도면 나가도 될 거 같았다. 그는 우마의 눈치를 힐끔 보더니 걸옷과 지갑을 챙겼다. 그러자 우마가 어디 가냐고 물었고 그는 친구들이 부르다며 획, 하고 나가버렸다.

“허, 허참.”

갑자기 나가버린 사마를 어이없는 눈초리를 보던 우마는 그 자리에서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 쪽에서 뜨거운 느낌이 들었다. 이건 어릴 때부터 자신이 아팠을 때 나타는 신호 같은 거였다. 우마가 부엌에서 하얀 약통을 꺼내 먹었다. 곧 진정될 거라 생각을 한 우마는 식탁에 앉았다. 아직 제사

상을 차리려면 할 것이 많았다.

사마는 시끄러운 PC방으로 들어갔다. 담배냄새가 은은하게 풍기고 있었다. 가끔씩 욕설이 섞인 말들도 여기저기 튀어나왔다. 카운터에서 카드를 받은 그는 20~26번 자리에 있는 자신들의 일행을 발견했다. 마침 비어있는 27번 자리에 앉았다.

“니들, 학원은?”

“몰라. 안 갈 거임. 빨리 로그인해.”

사마는 컴퓨터를 키고 게임을 시작했다. 게임을 시작한다는 문구가 컴퓨터 화면에 떴다. 출석선물을 받은 사마는 친구들과 개인방을 만들어 게임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사마일행이 게임에서 승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쩌다 다른 상대팀을 만났는데 점점 지기 시작했다. 승부욕에 불타는 그의 일행은 어느 기회를 잡아 상대팀을 겨우겨우 이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실수를 저질렀고 불타던 승부욕 덕분에 예민했던 사마 일행은 사마에게 화를 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실수인 게 맞았기 때문에 그는 미안하다며 웃어넘기려 했다. 하지만 점점 강도가 쎄지는 욕설 덕에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둘의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이어질 뻔 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그 둘을 말렸고 한참이 지나서야 진정이 된 둘이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너희 나중에 진정되면 화해하고 지금은 집이나 가자.”

가만히 있던 성운이 정리하자 다들 그러자며 수궁했다.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고 다들 내일보자며 각자 집으로 갔다. 사마는 집으로 가는 길에도 화가 풀리지 않았다. 아니, 처음에 자신이 잘 못 한건 맞았다. 하지만 게임 한

판 가지고 이렇게 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사마는 괜히 주변에 있던 꽃을 발로 짓밟았다.

그는 빠르게 집 비밀번호를 눌렀다.

“왔냐?”

소파에 앉아있던 우마가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사마는 대충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잠그고는 핸드폰 게임을 시작했다. 사마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었다. 우마는 이제는 괴로워진 심장의 고통을 참으며 사마를 불렀다. 아까 심장이 뜨거워지는 게 아플 거 같더니 제대로 아프기 시작했다. 우마는 또 한 번 사마를 불렀다. 제사상에 올릴 떡을 못 샀기 때문에 다시 나가서 사와야 됐다. 우마가 부탁하는 말투로 다시 한 번 사마를 불렀다.

“나 게임해야되!”

사마는 소리를 껍 질렀다. 그러자 놀란 우마는 더 커진 고통에 이를 악물었다.

“말시키지 마. 또 잔소리야, 시발.”

사마는 이어폰을 꺼내 노래를 크게 틀었다. 우마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 이렇게 매정할 정도로 나쁜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고작 게임에게 밀렸다니. 게다가 12시가 땡, 하고 넘으면 제사를 지내야하는데(여태껏 우사마네 집안에서 이래왔다).

우마는 결국 화가 나고 말았다. 몸은 몸대로 아프고 제사는 해야 했으며, 사마가 이르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사마의 책임감 없고 완전히 이기적인 면이 우마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다. 우마는 심호흡을 하면서 화를 진정시키고서는 사마를 불렀다. 하지만 다시 돌아올 리가 없는 대답이었다.

“여보세요?”

우마는 결국 사마를 포기하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그러다 유일하게 아무것도 없었던 소운이 알겠다고 기다리라고 했다. 우마는 연신 고맙

다며 중얼거렸다.

“너 왜 그래? 안색 안 좋아.”

“그게 몸이 안 좋아서.”

소운은 그런 우마를 보더니 신발을 벗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리저리 집안을 둘러보던 그가 입을 열었다.

“자고기도 되지?”

“어? 그래.”

“뭐하면 되?”

소운의 도움으로 제사를 무사히 끝냈다. 우마가 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자 제사를 빨리 지냈다. 아직 제대로 제사를 해본 적이 없었던 소운은 우마를 도우면서 애를 먹었다.

소운은 계속 골골거리는 우마를 재웠다. 우마는 그래도 손님인데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나중에 쓰겠다며 연신 말을 하던 우마는 그대로 잠들었다. 잠이 든 우마를 뒤로 한 채 소운은 혼자 불이 꺼진 거실에 앉아있었다. 소운은 잠이 오지 않자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검색했다. 이제 슬슬 졸리기 시작한 소운은 잠시 핸드폰에서 눈을 떴다. 주위를 둘러보던 소운은 사마의 방을 살며시 노려봤다.

“나쁜 새끼.”

소운이 끝까지 열리지 않는 사마의 방문을 노려봤다. 아무리 제 형이 싫어도 부모님 제사인데 나오지도 않다니, 소운은 사마 방문 앞에 섰다. 한 소리하려고 마음먹은 소운은 문고리를 잡았다.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방문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뭐라 중얼거리지만 그거까지 들리지는 않았다.

소운은 울음소리가 진정될 때까지 사마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까 말까 수 없이 고민한 소운이었지만 결국 열지 못 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쏟아지려던 잠은 이미 다 달아나버렸다. 집안은 깜깜했다. 오직 밖에 있는 가로등 불빛만이 집안을 돌아다녔다. 소운은 문고리에 올린 손을 때고는 뒷걸음질로 걸어갔다. 사마는 지쳐 잠들었는지는 방안은 조용했다.

“멍청한 놈.”

소운은 낮게 중얼거렸다. 개인적으로 사마가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였다. 하지만 그건 바램뿐이었다.

소운은 우마 방문을 열더니 침대에 같이 누웠다. 침대에 눕자마자 눈 커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더니 바로 잠이 솔솔 오는 소운이었다. 결국 잠을 이기지 못 한 소운은 그대로 스르륵 잠이 들었다. 집안에는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집안을 돌아다녔다.

고요한 32평 아파트 안에는, 침묵이 돌아왔다.

우마는 일주일째 학교를 못 나가고 있었다. 많이 심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몸이 힘들었기 때문에 쉬었다. 물론 며칠은 아팠었다. 그런 우마가 걱정이 된 담임선생님은 우마네 집을 찾아왔다. 선생님은 굳은살이 많은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핑동.

한가로운 주말에 울리는 초인종소리 덕분에서 잠귀가 밝은 사마가 잠에서 깨어났다. 시끄러운 소리에 짜증나게 깬 사마는 거실로 여기적거리며 걸어 나왔다.

핑동.

두 번째 초인종이 울렸다. 사마는 우마 방으로 걸어갔다. 문을 살짝 열자

자고 있는 우마의 뒤통수가 보였다. 깨우지 않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한 사마는 거실에 있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한다.

핑동.

사마는 여기적어거적 걸어가 문을 열었다. 그러자 어느 50대 중반인 남성이 보였다. 그 남성은 햇빛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는 사마를 보며 반가운 표정으로 환하게 웃었다.

“우마, 멀쩡하네?”

선생님이 방긋 웃었다. 사마는 확인하고 문을 열었어야 된다고 자신을 자책했다. 그러다 자신을 형으로 착각하는 그 사람을 쳐다보다 말했다.

“저 백사마인데요.”

쌍둥이들은 자신을 구별 못하는 것에 민감한 사람이 몇몇이었다. 사마도 그런 케이스였다. 사마에 말을 들은 선생님은 웃으며 미안하다했다. 그리고는 집 안에 우마가 있냐며 물었다. 사마는 어깨를 으쓱거렸다. 그 다음에 선생님을 노려봤다. 믿을 만하게 생긴 외모는 아닌 선생님이였다. 그래서 의심하던 사마는 그림, 하고 고개를 숙이더니 문을 닫으려했다. 선생님은 놀란 얼굴로 문을 잡았다.

“우마가 없니? 그러면 미안하지만 더워서 그러는데 시원한 물 한잔만...”

“선생님, 거지세요? 그냥 저기 슈퍼에서 사드시죠.”

사마는 문을 광 닫았다. 사마에게 그 선생님은 무언가 정말로 괜히 기분 나쁜 사람이였다. 신종사기인가? 하며 사마는 다시 방으로 걸어갔다. 무언가 짹짹했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다. 사마의 머릿속에는 우마의 담임선생님이 정말로 선생님일거라는 생각은 없었다.

사마가 문을 닫고 가버리자 그 황당한 행동에 선생님은 문 앞에 서 있었다. 입에서는 어이가 없는지 계속 헛기침이 나왔고 화가 나기 시작했다.

“허, 허참.”

선생님은 문 앞에 한참이나 서 있었다. 사마를 불러서 뭐라 하기에는 감

정이 정리가 안 돼, 화를 낼 가능성이 커서 일이 좋게 끝나지 않을 거 같았고 그냥 가자니 지는 기분에 답답해졌다.

“뭘, 이런 애가…”

우마의 담임선생님인 박 선생은 자신과 가장 친한 김 선생에게 주말에 있었던 일을 말했다. 물론 조금은 과장되었지만 말이다. 박 선생은 자신이 얼마나 황당했는지와 그렇게 버릇없는 애는 처음 봤다는 이야기했다. 그냥 물 한잔 달라고 했던 것뿐이었는데 문전박대를 당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뭘, 박 선생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박 선생이 먼저 쌍둥이 애들 심기 건드린 거 일 수도 있어. 몇몇 쌍둥이 누가누군지 헛갈려하면 싫어하는 하더라고. 그건 그렇고 개는 정말 버릇이 없군.”

김 선생은 종이컵에 담겨있는 커피를 마셨다. 아직 등교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지 복도에는 학생들이 몇 없었다. 두 선생님들은 그래서 그런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사마의 대해서 이야기했다. 두 선생님이 말하는 대화주제를 복도를 지나가던 아이들이 듣게 되었다. 그러자 남일을 유난히 잘 말하고 다니는 애들 귀로 그 이야기가 들어갔고 학교에 그 소문이 순식간에 빠르게 퍼졌다. 하지만 소문이란 게 그냥 퍼지는 게 아니었다. 과장이 되거나 이상하게 커져갔다. 사실 근거 없는 이야기가 붙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이야기까지 나타난다. 도를 넘으면 아무리 해명을 해도 소용없을 정도로 커지기 시작했다. 소문 속 사마는 위아래가 없고 반말은 기본, 예의는 밥 말아 먹었고 싸가지는 사라진지 오래, 술 담배는 매일 달고 살고 학교 주변에서 애들 빵이나 뜯고 자신의 쌍둥이 형을 폭행하는 사람이었다. 사마의 쌍둥이 형이 학교를 나오지 못 하는 이유가 사마가 때려서 그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 번 커진 소문은 작아질 줄 모르고 커지고 커지고 또 커졌다.

결국 소문이 감당이 안 되게 커지자 사마의 담임선생님인 이 선생이 사마를 따로 불렀다.

“사마야, 학교에 퍼진 소문 알지?”

사마는 선생님의 말을 떨어지자마자 인상을 구겼다. 사마가 불안할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다. 사마는 이미 소문을 어느 정도는 대충알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따로 부를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다. 그는 불안하기도 하고 선생님과 단 둘이 있는 이 자리가 답답하기도 했다.

“네.”

목소리를 쥐어짰다. 목소리의 음정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게 사실이니?”

“잘 모르겠어요.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선생님은 차분하게 사마와 대화를 이어갔다. 사마는 진심을 다해 말했다. 자신이 솔직하게 느낀 감정과 소문에 있는 거짓과 진실의 대해서도 해명했다. 선생님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잘 들어줬다. 소문 중에서 몇 가지는 사실이지만 나머지는 자신도 모르는 소문들이라고 했다. 사마는 억울하다며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 수고했다, 잘 가.”

사마가 인사를 하고 상담실을 나갔다. 사마가 나가자마자 이 선생은 앞머리를 쓸어 올렸다. 공책을 신경질 나게 닫은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애가 인정을 안 하네?”

이미 사마에게 편견이 생겨버린 이 선생은 그가 하는 짓이 하나하나 다 가식적으로 보였다.

“역시 부모 없는 애들은…”

몸이 생각보다 빠르게 호전이 된 우마는 오랜만에 등교를 했다. 일주일 동안 안 입었던 교복이 어색했지만 아침공기가 맑아서 기분이 좋은 그였다.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없었어?”

“어, 그냥 그랬어.”

사마와 우마가 서로 나란히 등교를 하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형 때린다던 소문은 사실이 아닌가봐, 아니면 형이 성격이 좋은 거겠지. 우마는 들리지 않는 거 같지만 사마에게는 그런 말들이 들렸다. 그러자 괜히 나타나는 심술에, 우마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 어제 선생님과 했던 상담덕분에 사마는 이곳저곳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이따 보자.”

둘은 각자의 교실로 들어갔다. 사마는 우마와 헤어지자마자 mp3를 꺼내 노래를 볼륨 최대로 높였다. 그리고는 긴장한 표정으로 교실 문을 열었다.

우마는 자신의 친구들을 오랜만에 보는 즐거움 때문인지 발걸음이 가벼웠다. 교실로 들어가자 구석에 자신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그는 반가운 나머지 그들에게 달려갔다.

“안녕!”

그들도 그에게 인사는 해 줬지만 표정이 썩 좋지 않았다.

“왜 그래? 다들 무슨 일 있어?”

“아니, 너 오랜만에 왔는데 이런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비현이 난감한 표정으로 손을 꼬지락거렸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더니 여태 있었던 일을 설명해줬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들은 소문들을 말해줬다. 우리 반 담임선생님이랑 사마가 씨가지와 위아래가 없다는 이야기, 또는 우마가 왜 학교에 못한 이유의 대한 루머 등등…“그리고 걔 친구들이 앞에서는 잘 해주고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욕하나봐.”

이야기를 듣는 우마의 표정은 점점 굳어가기 시작했다. 자신이 없었던 일주일 동안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사마의 교우관계는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뒤에서 욕한다고?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는 우마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런 우마의 표정을 살피며 비현은 최대한 좋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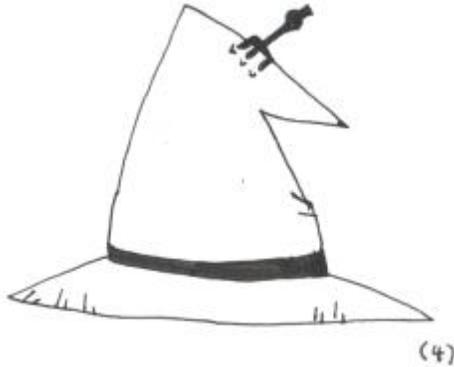
“전교생이 알고 있는 거 같고, 그냥 막 소문이 정말로 개판인거 같아. 소문 난지 일주일정도 된 거 같아.”

“그렇게 심해?”

우마는 멍하게 서서 주위 애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다. 자세히 들어보니 다 사마이야기였다. 자신이 없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마는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4화.

마녀 사랑



2주일이 지났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라고 예상했던 소문은 사라지기

는커녕, 눈덩이처럼 커지고 커져 결국은 주체 할 수 없어졌다. 우마나 사마의 지인들이 어떻게든 해명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잠잠해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커졌다. 사마는 이미 포기했는지 거의 혼자 다니기 시작했다. 그동안 사마네 반이 달라진 게 있다면 짝이 바뀐 것과 사마 주위에 친구들이 사라져가는 것이었다. 자리를 바꾸고 구석 쪽에 앉게 된 그는 더욱 외로워 보였다.

사마는 요 근래 언제나 mp3를 듣고 있었다. 언제 어디서든 사마를 욕하다보니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어였다. 그는 주위를 한 번 둘러보더니 옆에 누군가 온다면 노래 소리가 들릴 정도로 소리를 최대 높였었다.

“야, 백사마.”

누군가 그의 이어폰을 확 뺐었다. 아픔과 동시 찾아온 시비조의 그는 이어폰을 잡아당긴 사람을 쳐다봤다. 귀가 허전해진 느낌에 사마는 인상을 찌푸렸다. 이어폰을 잡아당긴 사람은 형식이었다. 형식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을 하며 사마의 어깨를 툭툭 쳤다.

“존나 잘 지내다가 따 되니까 어떠냐?”

“뭐?”

사마는 어이가 없었다. 자신과 아무 접촉도 없었던 그가 시비를 걸자 황당할 뿐이었다.

“존나 잘 지내다가 따 되니까 기분이 어떠냐고, 씨발놈아.”

형식은 사마를 개인적으로 미워하던 아이였다. 둘은 별 접촉은 없었지만 형식은 항상 사마를 미워했다. 이유라고 말하자면 열등감 때문이었다. 성격이 썩 좋지는 않지만 주위에는 언제나 친구들이 있었고 매일 놀기만 하지만 공부도 어느 정도 잘 했다. 얼굴이 못생긴 편도 아니고 키고 작은 편이 아니었다. 형식은 자신보다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사마가 정말로 밉고, 싫었다. 하지만 이게 원 일인가? 소문 덕분에 ‘따’가 되어가는 사마였다. 그러자 형식은 자신이 더 나아졌다는 우월감에 사마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날 봐, 날 보라고! 너보다 내가 이제는 더 잘났어! 라는 듯이.

형식이 사마를 밀었다. 무방비하게 있었던 사마는 그대로 넘어지게 되었다. 우당탕탕 거리는 소리와 함께 교실은 시끄러워졌다. 불행하게도 사마의 친구들은 축구를 하러 운동장에 가 있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마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왜 갑자기 지랄이야.”

사마가 아픈 엉덩이뼈를 잡으며 일어났다. 형식은 사마의 말투를 비아냥거리며 따라했다. 그러자 사마는 주먹을 꼭 쥐었다.

일이 커질 거 같아 부반장인 여자아이가 안절부절 못 하기 시작했다. 반장은 교실에 보이지는 않았다. 할 수 없이, 부반장인 즉 하나가 살며시 그 만하라며 말했다. 하지만 유난히 작은 하나의 목소리 덕분인지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나야, 우마라는 애 불러야 되지 않아?”

누군가 교실에서 안절부절 하지 못 하고 있는 하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자신을 부르는 한 여자애들 쳐다봤다. 반에서 걸도는 아이인 성경이이었다.

“몇 반인데?”

“2반일걸?”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우마네 교실로 갔다. 하나는 2반에 한 여자애를 붙잡고는 우마를 불러달라고 했다. 그러자 잠시 뒤 우마가 걸어 나왔다. 우마는 하나를 보다가 누군가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지 모르겠는 우마였다.

“저기 미안한데 누구야?”

우마가 미안하다는 얼굴로 하나를 내려 보았다. 처음 보는 여자애였다. 얼굴이 동글동글 한 게 하얀 찐빵 같았다. 하나의 얼굴을 보던 우마 입에서는 푸스스 웃음이 나왔다. 그런 우마를 보던 하나는 입을 열었다.

“아, 나는 김하나. 진짜 미안한데 내가 사마랑 같은 반 부반장이거든, 지금 사마가 같은 반 애랑 싸워서 그러는데 말려 줄 수 있어?”

“뭐?”

우마는 하나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마의 반으로 뛰어갔다. 사마네 반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아마도 싸움을 구경하는 패거리 같았다. 우마는 사람들을 일일이 밀어내며 겨우 반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우마는 초조했다. 빨리 가고 싶은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비켜주지 않는다.

“씨발 쌍 새끼가!”

사마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이어 퍽 하는 소리가 들렸다. 주변에 있던 여자애들이 소리를 질렀다. 우마는 사람들 틈으로 보이는 피에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우마가 까치발을 들어 사마를 봤다. 사마 손에는 의자가 들려 있었다.

“개새끼야 무슨 짓이야!”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그제야 반에 있던 아이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마는 자신도 놀랐는지 별별 떨면서 의자를 바닥에 떨어트리고 말했다.

“일단 양호실로!”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전에 쌤 좀 불러와!”

교실은 난장판이 되었다. 형식을 일으키는 아이들과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 사마에게 욕을 내 뱉는 아이들과 놀랐는지 울고 있는 몇몇 아이들,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슬그머니 반을 빠져나가는 아이들까지 교실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백, 백사마.”

우마는 사마를 불렀다. 우마의 목소리를 바로 알아 쟤 사마는 고개를 들어 멍해진 눈빛으로 우마를 쳐다봤다. 둘 사이에서는 긴 침묵이 돌았다. 우마는 괜찮냐는 위로의 한 마디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의 대해서 물어보지를

못 했다. 뇌가 제 기능을 못 해 멈춰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 가 없는 우마였다.

“나, 난.”

사마가 변명을 하려고 입을 움직였다. 하지만 사마의 담임선생님인 이선생이 화가 난 얼굴로 교실에 들어와 사마를 반강제로 잡아당기며 교실을 나갔다. 이선생이 나가자마자 반 아이들은 엉망이 돼 버린 교실을 치우기 시작했다. 우마는 아이들이 교실을 다 치울 때 까지 말없이 서 있었다.

“저기 하나야.”

“응?”

우마는 하교를 하고 있는 하나를 살며시 불렀다. 하나를 부르는 우마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사마가 폭력을 사용한 건 맞았다. 그리고 여태까지 사마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그래도 일단 마음을 먹었으니 실행하려는 그였다. 하나는 누군가 자신을 부르자 고개를 돌려 쳐다봤다. 처음에는 사마가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당황한 그녀였지만 명찰에 적혀있는 ‘백우마’를 보고서는 안심했다.

“오늘 시간 돼?”

하나의 친구들은 우마가 고백하는 걸로 오해를 했는지 잘 해보라며 그녀를 두고선 하교 해버렸다. 그러자 난감한 하나는 어색하게 웃고 말았다.

“응.”

하나와 우마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다. 개인 취향에 맞게 음료를 시켰다. 둘은 각자 말없이 테이블에 앉아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사마의 대해서 알려줄래?”

어색함을 뚫고 나오는 우마의 목소리였다. 생각보다 황당한 질문에 하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하나는 음료를 가져가라는 진동 벨이 울리자 카운터에서 음료를 받아왔다. 그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평소에 학교에서는 시끄러운 애? 남자애들이랑 있으면 시끄럽고 분위기 메이커?”

하나는 제 앞에 있는 오렌지마말레이드를 마셨다, 하나는 웬지모르게 같은 얼굴이지만 사마는 불편했고 우마는 편했다. 겨우 오늘 처음안사이었지만 말이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사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쪽이었다.

하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같은 나이 또래랑 있으면 그냥 평범했는데 시끄러웠어. 선생님만 오시면 좀 달라졌어. 말투도 확 변하고 아무리 살갑게 말 걸어도 무뎡뎡하고, 가끔 너무 이기적이게 행동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을 때도 있었어. 그냥 내가 아는 건 이정도?”

“오늘 일에 대해서는 알아?”

하나는 어깨를 으쓱 거렸다. 세세하게 알지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의 틀은 알았다.

“너 소문에 대해서는 알지? 백성경이라고 우리 반에 있는데 개가 교무실 갔다가 이상한 말을 듣고 온 거야. 그래서 사마랑 친하게 지내는 애들한테 진짜냐고 물어봤나봐. 우리 반에 입이 좀 썩 애가 있는데 그걸 또 들은 거지. 입 썩 애들이 가끔씩 말을 좀 과장해서 말하잖아. 그래서 소문이 더 이상하게 커졌나봐. 막 사마랑 놀던 애들도 앞에서는 친한 척 하더니 뒤에서는 욕하고, 나중에 그거 사마가 알게 되서 혼자 노래 크게 틀고서는 암전히 교실에 있었어.”

그런 사마에게 형식이가 시비를 걸었고 서로 욕하면서 싸우다가 형식이 결정타를 사마에게 날렸었다. 하나는 여기까지 말 하고서는 형식이 말 한 욕을 입 밖으로 내 뱉지를 못 했다. 그러더니 우마의 눈치를 봤다. 하나가 왜 그러는지 모르는 우마는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결정타가 뭔데?”

그러자 그녀는 눈치를 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모 없는 년, 그러니까 이렇게 크지.”

우마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커졌다. 그러더니 확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우마의 눈치를 살피던 하나가 말했다.

“이거 좀 말이 심하다, 근데 나 어디 가야 되서 미안해. 나중에 물어 볼 거 있으면 이야기 해줘.”

“응. 고마워. 세상은 역시 세상의 모든 사람을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분류 할 수 있는 거 같다. 조심해서 가.”

하나는 갑작스레 살벌해진 분위기에 허둥지둥 카페를 나갔다. 어디 가야 한다고? 그런 건 하나도 없었다. 그냥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뭔지 모르게 불안해져서 생각나는 핑계를 대고선 집으로 간 것이었다. 우마는 그저 하나가 정말로 약속이 있는 걸로 생각하겠지만.

하나가 나간 뒤에 우마는 계속 카페에 앉아있었다. 음료는 아직 반쯤 남았었다. 오늘 하루 일어난 모든 일이 꿈일 거 같은 우마였다. 개학한지 2주 하고 3일이 지난 지금 우사마의 생활은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징-

우마는 호주머니에서 울리는 핸드폰을 꺼냈다. 처음 보는 번호가 떴다. 우마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한 소년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음식을 만드는 동시에 전화를 하고 있었다.

“너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와. 아님 11시 넘어서 들어오거나.”

간단한 용건만 말하고 소년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소년이 하고 있는 음식 덕분에 집안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는 커다란 상에 음

식을 가득 채웠다. 그러더니 어느 방으로 들어가 실내화 세 켤레를 꺼내 현관 앞에 두었다.

소년은 소파로 걸어갔다. 그러더니 건들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마치 몸에 익숙한 버릇처럼. 소년은 초초한지 손톱을 물어뜯었다. 소년의 시선은 핸드폰시계에 가있었다.

땡-동.

초인종이 울렸다. 무덤덤한 표정의 소년은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검은 양복을 입은 세 사람이 들어왔다. 그 중 익숙한 얼굴인 이선생도 보였다. 그들은 실내화를 신고 집안을 둘러봤다. 그러다 상 위에 있는 음식들을 발견하더니,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우마는 어디 갔니?”

검은 양복을 입은 3-40대 중반의 여성이 소년을 보며 말했다. 그러자 소년은 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개는 음식 만들고 나갔어요. 급하게 나가는 거 같던데, 뭔 일 있나보죠.”

그는 검은 무리를 보고 식사하시라 말했다. 그와 검은무리는 상 앞에 앉았다. 맛있는 냄새가 나자 그들은 침을 꿀꺽 삼켰다.

“먹으면서 하자, 박형식이 왜 때렸니?”

이선생은 손가락을 들었다. 형식적으로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이선생의 질문에 소년은 한 동안 침묵을 유지했었다. 검은 무리들은 밥을 먹으며 소년을 뻘뻘 쳐다봤다. 소년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싸운 거는 둘 다 잘못했어요.”

소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년은 손가락으로 제 명찰인 즉, 백사마라고 적혀있는 명찰을 만지작거렸다. 소년은 잠시 생각하는 듯 입을 앙 다물고 있다가 이내 다시 열었다.

“그런데 제 입장도 생각해주세요, 일방적으로 형식이가 먼저 시비 걸었어요. 제가 행동한 폭력은 잘 못 한 거지만 그래도 제 입장으로 생각해주세요.”

요. 의자로 때린 건, 맞아요. 물론 제가 다 잘 못 했죠. 하지만 그때는 이성을 잃었어요. 박형식이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을 욕했어요. 차마 입으로 꺼내기는 힘든 말들을요. 너무 화가 나서 잠시 정신 줄을 놔는데, 정신차려보니 상황이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소년은 약간의 거짓을 섞어 말했다. 그런 소년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는 교감선생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심한 말은 박형식군이 먼저 했나?”

소년은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군.”

검은 무리들은 소년을 뒤로하고 자신들끼리 소근 거렸다. 한참동안 이야기를 하던 그들은 식사를 다 마치고 일어났다. 교감선생님은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솔직하게 말 해줘서 고맙다.”

검은 무리가 나가자마자 소년은 주저앉았다. 온 몸의 힘이 풀렸는지 말없이 앉아있는 그였다. 소년은 제 가슴팍에 달린 명찰을 만지작거렸다. 심장소리가 빠르게 들린다. 이 만큼이나 떨렸던 것 이다. 소년은 심장만큼이나 빠르게 떨리는 손을 봤다. 긴장이 확 풀리자 몸이 제 멋대로 움직이는 거 같았다.

“살았다.”

소년이 중얼거리며 거실 바닥에 누웠다.

뼉, 뼉, 뼉, 뼉, 띠리릿!

문이 열리고는 누군가 들어왔다. 그 누군가는 검은 봉지를 들고서는 신발을 벗었다.

“왔나?”

“아이스크림 먹을래?”

소년 앞으로 걸어 온 누군가는 인상을 찌푸렸다.

“너 지금 내 옷 가지고 뭐하냐?”

사마는 자신의 옷을, 그러니까 자신의 명찰을 달고 있는 우마를 내려 보았다.

“잘 못 입었나봐, 나 아이스크림.”

우마는 사마에게 명찰을 건넸다. 그러자 아무의심 없이 명찰을 가져가는 사마였다. 우마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스크림을 골라 꺼내먹었다.

2시간 전, 우마에게 전화한통이 왔다. 하나와 헤어진 다음 카페에서 앉아 있다 받은 전화였다. 전화 내용은 교감 선생님과 사마의 담임, 부담임이 가정방문을 오늘 하겠다는 잔화였다. 원래는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하고 해야 하는 건데 일이 급해서 오늘 가능하냐는 내용이였다. 순간 우마 머릿속에서 든 생각은 자신과 우마가 똑 같이 생겼다는 것 이였다.

어찌 보면 도박이였다. 자신이 사마인 척을 하는 것 이었으니까. 그래도 퇴학은 비켜 갈 수 있을 거 같았다.

“피해자 학생 부모님도 애가 반성하는 거 같으면 그냥 병원비만 받고 넘어가시려는 거 같더군요. 일 커지는 게 싫으시다면 서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가해자 학생도 만나보니까 반성하는 기미가 많이 보이고...”

“요즘 우리학교 소문이 어떤지 아십니까? 가해자 학생이 평소에 행실이 어땠으면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 가해자 학생이 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군요.”

학교에서 가장 젊은 남선생이 말했다.

“그럼 가해자 학생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 보죠. 어제 가정방문 때는 암전했으니까요.”

이 선생이 교무실을 나갔다. 5분정도 지나자 사마와 이 선생이 들어왔다. 교감선생님은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어제 있었던 일을 사마에게 말 하라고 하였다. 교감선생님의 말에 사마는 인상을 찌푸렸다. 내가 뭘 인정하고, 언제 이 영감이랑 이야기 했는데? 사마는 어이가 없어서 그런지 말투가 퍽퍽 세어났다. 내가 모르는 일을 교감선생님이 알고 계신다. 이게 뭘 개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 어제 11시까지 pc방에 있었는데. 그리고 의자로 때린 건 제가 잘 못 한 건 맞는데 그게 다예요. 먼저 시비건 것도 박형식이고 욕한 것도 박형식인데 왜 자꾸 나만 가해자로 몰아요?”

어제와 다른 사마의 태도의 교감선생님은 당황했다. 웅성거리는 선생님들의 시선과 말들이 사마에게 향하기 시작했다. 이선생이 분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교무실 밖으로 사마를 밀어냈다.

“저만 가해자로 몰지 말라고요!”

거의 쫓겨나듯이 나간 사마의 마지막 외침이었다.

“교감선생님 말과 다르군요. 제 말이 맞았어요. 가해자는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면 가해자 학생은...”

자퇴로 위장한 퇴학을 하게 되겠죠. 남선생은 자신이 이겼다는 기분에 입꼬리가 올라갔다. 학교에서 물을 흐리던 미꾸라지가 드디어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생활이 바른 학생은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남선생, 그건 소문일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선생이라는 직업은 학생을 믿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가해자학생을 퇴학시키려는지 이해가 안 됩니까?”

교감선생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미 모두의 마음은 안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럼 제가 가해자학생을 만나기로 하죠.”

남선생은 검정색 다이어리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네가 그, 애들 자주 때리고 욕은 입에 붙었고 형 한태도 버릇없게 군다는 문제아지?”

“아니 저...”

“어른이 말하는데 대꾸까지, 싸가지도 없고 완벽하구나?”

사마는 아까부터 말이 안 통하는 남선생을 보려봤다. 싸가지가 없는 건 자신이 아니라 저 선생이었다.

“근거 없는 말로 그러지 마세요.”

“근거? 근거가 없다고? 네가 평소에 하는 짓이 다 알려주잖아.”

퍽, 검정색 다이어리가 사마의 머리를 강타했다. 잠시 멍한 느낌에 우마는 말이 없었다. 우마는 주위를 둘러봤다. 정말 재수 없게도 교무실에는 남선생과 자신뿐이었다.

“그냥 본론만 말한다? 너 어차피 퇴학이니까 그냥 네 손으로 자퇴서 쓰고 나가.”

“뭘라고요?”

“여기서 학교망신, 네 형 망신 그만 하고 나가라고. 네가 여기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남선생은 귀찮다는 얼굴로 서랍에서 자퇴서 용지를 꺼냈다. 검정색 볼펜과 함께 그 종이를 사마에게 주는 남선생이었다. 사마는 남선생이 주는 새하얀 종이를 노려봤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당장이라도 그 종이를 찢어버리고 싶었다.

“어서 안 가져가? 여기서 당장 써. 그리고 내일 부터 학교 오지 마.”

“이런 이야기는 가족들이랑 하는 거니까, 내일 다시 이야기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남선생은 나가려는 사마를 보고서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웃긴다, 네가 말을 할 가족들은 있니?”

문을 열려고 잡았던 사마의 손이 멈추고는 파르르 떨렸다, 사마가 말 없어 남선생을 노려보았다. 그러자 남선생이 사마를 보며 비웃었다.

“빨리 써. 귀찮게 하지 말고. 너 같은 애가 있으면 학교가 망하기만 하지 뭐가 더 되겠어?”

사마는 제 눈앞에서 핑 도는 눈물 덕에 눈을 깜박이지 않았다. 눈 꼬리에 눈물이 아슬아슬 하게 달려있었다.

“올어? 우니? 네가 올 자격은 있다고 생각해? 나는 너 같은 애들이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너 한테 아무감정 못 느껴. 알아? 그러니까 울어도 소용없어.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써.”

사마는 하얀 종이를 남선생에게서 받았다. 그러더니 그대로 교무실을 나가버렸다.

“여기서 쓰라니까, 정말.”

남선생은 인상을 찌푸렸다. 솔직히 사마라는 저 아이가 불상하기는 했지만 이런 지옥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것 보다는 나가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나가는 것이 더 좋을 거 같았다.

“미안하다.”

남선생은 깊은 한 숨을 쉬었다.

사마는 자퇴서를 자신의 방으로 가져와 작성했다. 말없이 작성하던 사마는 결국 울고 말았다. 내가 잘 못 한 거 아닌데, 나는 그냥 너무 화가 나

서... 사마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영영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냥 내가 그냥.”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사마였다.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

자퇴 하는 게 서러운 것이 아니라 타인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너무 싸늘해서, 그리고 그게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나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 때문에 부모님이 욕을 먹는 거 같아서 더 서러운 사마였다.

“백사마...?”

울음소리를 듣게 된 우마가 사마에게 다가갔다. 왜 우냐며 방으로 들어왔다. 사마는 쓰다만 제 자퇴서를 보여줬다. 자퇴서에는 뻑뻑한 글들이 적혀있었다. 우마는 글들을 잠시 읽어보더니 말했다.

“이게 뭐야?”

사마는 침묵으로 대답했다. 미안해, 미안해 형. 사마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자 자신의 머리로써는 이해가 안 되는 우마는 일단 사마를 달랠다

“여기요.”

“백사마야? 아님 백우마야?”

남선생은 자신에게 자퇴서를 넘기는 남자애를 봤다. 교복에는 명찰이 없었다.

“글쎄요.”

“너 복장분량인거 알아? 명찰은?”

남자애는 남선생을 보더니 그저 어깨를 으쓱였다. 그러더니 인사만 하고 휙, 돌아서는 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도울 거 있으면 말해라.”

남자애는 그런 남선생의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한 번 숙이고 교무실을 나갔다. 남선생은 자신이 말해도 뻔뻔했나 싶어서 얼굴이 괜히 붉어졌다. 솔직히 강제로 밀어 보낸 건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남자애가 나가자 남선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멍청한 인간들.”

우마는 자신의 명찰을 다시 교복에 달았다. 명찰이 없으니 확실히 자신을 알아보지 못 하는 선생님들이었다. 어제부터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는 사마가 걱정이 되어서 긴 한숨을 쉬었다. 정말로 차가고 쓰린 현실이었다. 조금만 이상하게 몰리면 따돌리려 결국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퇴학을 하면 그 학생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그 말 한마디 덕분에 자퇴로 위장한 퇴학을 시키는, 이런 사회 시스템이 정말로 무서운 우마였다.

사마는 충격이 컸는지 말을 잘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마가 집에 없는 시간에만 방을 나와 돌아다녔고 우마가 집으로 들어오면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는 나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사마랑 말 하려고 노력하던 우마였는데 더 이상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자,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기다릴게. 언제든지 말 해줘.”

우마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 뱉었다. 우마는 기다리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생긴 성격이었다. 부모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우마는 끝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그건 헛된 꿈이었다.

“형이 지켜주지 못 해서 미안해.”

우마는 사마 방문 앞에서 입을 열었다. 확, 하고 마음이 쓰리기 시작했다.

“학교 말고 검정고시도 있고 내가 나인 척 학교도 가도 돼. 내가 나 미워해도 나 뭐라고 안 해. 혼자 안고 가지만 말아줘.”

우마는 미리 요리해뒀던 음식을 사마 방문 앞에 두었다.

“저녁 같이 먹고 싶은데 아직은 네가 싫겠지? 저녁밥 여기 앞에 둘게.”

사마는 방 안에서 그 말을 듣고는 어이없는 듯 웃기 시작했다. 형? 네가 언제 내 형이었어? 나보고 너 인척 그 지옥을 가라고? 가식부리지마. 난 네가 가장 미워! 그 자퇴서 네가 안 내버렸으면 됐잖아. 그런데 그걸 내가 왜 나대신 내?

“맞자, 나 처음으로 반장해봐. 우리 반 반장이었던 애가 무슨 사정으로 전학가게 되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방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우마는 그 소리에 집중했다. 하지만 한번 쓱, 들리고는 더 이상 들리지가 않았다.

“그냥 나도 자퇴할까? 검정고시가 더 좋았던데.”

우마는 사마 방문 앞에서 잠시 앉아 있다가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다.

‘솔직히 잘 된 거 같다.’

우마는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했다. 동생이 없는 학교는 솔직히, 너무 편했었다.

사마가 없는 학교는 평온하게 돌아갔다. 그 커다랗던 소문이 사라지고, 시끄러운 폭력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누군가 떠났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듯이, 너무나도 평온하게 학생들은 돌아다녔다.

정말로 평온하게.

5. 작품설명

이 책은 제천간디학교 고등진급과정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원본 신화는 이러하다.

▶옛날, 해동국에 사마장자와 우마장자가 살았다. 이름이 비슷한 이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한 동네서 나고 자란 친구였지만, 사는 형편이며 성격은 매우 달랐다. 우마장자가 이웃 사람들을 늘 돕고 사는 착한 사람이지만, 집안은 몹시도 가난했던데 반해서, 사마장자는 부자였지만 인색하기가 그지없었다. 사마장자는 어찌나 인색했던지, 자신의 생일에도 생일상을 차리지 않으며,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상도 차리지 않았다. 그러니 친구인 우마장자에게 인색하게 대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어느 날, 우마장자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삿날이 다가왔는데 돈이 없어 제삿거리를 살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친구 사마장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마장자의 냉정한 태도뿐이었다. 우마장자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지만, 사마장자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고, 결국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부탁을 한 끝에 겨우 돈을 마련해 제사를 치렀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사마장자의 집으로 웬 스님 한분이 찾아와 시주를 구했다. 하지만, 부모님 제사도 지내지 않는 사마장자가 시주를 할 터가 있다. 결국 스님마저 모질게 내쫓고 말았다. 우마장자와 스님에게 한 이런 일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마장자를 홍보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 어른 세 분이 찾아와 사마장자를 꾸짖으며 달랬다. 하지만 그 분들의 말이라고 귀에 들어올 리 없었다. 결국 어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사마장자의 집을 떠났다. 그리고 얼마 후의 일이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회오리바람이 불어 닥치더니, 사마장자를 벽으로 밀치기 시작했다. 사마장자는 꼼짝없이 이 쪽 벽에서 저 쪽 벽으로 계속 휩쓸려 다니면서 온몸을 부딪히니 죽을 지경이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놀라 뛰어온 며느리가 이 모습을 보고는 우마장자를 찾아갔다. 사실,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달리, 어찌나 착한지 고약한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고 있었다. 우마장자는 사마장자에게

그동안 당한 게 분했지만, 며느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겨 방책을 일러주었고, 며느리는 그 말에 따라 떡과 술, 음식을 차린 상을 세 개 준비하고, 옷 세 벌과 짚신 세 켤레도 챙겼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 사마장자를 잡으러 저승사자 세 명이 들이닥쳤다. 며느리는 황급히 뛰어나가 음식상을 내밀었고, 저승사자들은 영문을 모른 채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새 옷과 짚신까지 입히고 신기며, 시아버지의 선처를 부탁하자 저승사자들도 차마 사마장자를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대신 이름이 비슷한 우마장자를 데리고 염라대왕 앞으로 갔다. 하지만 염라대왕은 사마장자가 아니라 우마장자라는 것을 알고는, 우마장자를 돌려보내고 저승사자의 우두머리인 강림도령을 보냈다. 그리고 강림도령은 자고 있던 사마장자를 염라대왕 앞으로 데려왔다. 염라대왕은 사마장자의 나쁜 짓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마장자를 불이 이글거리는 지옥으로 보냈다. 며느리의 가혹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나쁜 행동들은 용서되지 않았던 것이다. 사마장자가 그렇게 벌을 받고 있는 동안, 우마장자는 이승에서 더욱 착하게 살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착한 며느리도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원래 소설	책에서 바꾼 점
사마장자와 우마장자는 친구사이	쌍둥이
가난함, 부자	건강
회오리바람	소문
해동마을	해동아파트
지옥	학교
객귀	자퇴
저승고지지	반장
며느리	특정 인물이 없고 여러 명이 돌아가며 된다.

마을사람들	친구들
저승차사	선생님
고지기	반
염라대왕	남일우 선생님

그리고 또 다른 것인 청소년 심리와 문화였다. 여태 내가 소설에 쓴 내용은, 청소년 가출문제, 아니면 비행하는 이유들 중 ‘부모님 이혼’ 또는 ‘사망’, 그리고 자살문제 ‘학교폭력(언어)’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학교 폭력인 ‘따돌림’도 있다. 타인이 밉고 열등감을 느끼는, ‘사춘기’도 선택했다.

소설 내용을 읽어보면 가출문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 말고 언어폭력을 선택했다. 소문을 언어폭력으로 했다. 언어폭력은 어떤 면을 사용했냐면 바로 ‘소문’을 선택했다. 그리고 따돌림 그 소문 덕분에 생겨나는 것으로 했다. 소문은 책을 참고해줄 길 바란다. 현재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가 너무 힘들어 반항을 하면 그 반항 한 것을 그 아이에게 좋은 면으로 소문내서 더 따돌림을 당하게 만든다. 소설에서도 사마가 의자로 때린 것도(물론 잘 못 하기는 했다.) 무조건 사마가 잘 못 한 걸로 나온다. 그리고 편견의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예로 어느 작은 남자애가 중학교 때부터 공부도 못 하고 놀기만 하다가 고등학생이 되고나서 공부를 갑자기 잘 하게 되면 다들 그 아이가 노력했다는 점은 보지 않고 커닝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면을 내 소설에 넣었다. 사춘기 같은 경우는 열등감, 형식이 사마에게 느꼈던 그런 감정이다. 그 타인에게 열등감을 느껴서 타인을 미워하게 되는 사춘기의 과정. 물론 나도 이런 적이 있었다. 그래서 확실히 쓰기가 편했던 거 같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인데 내가 느끼는 우리나라 사회를 사마와 우마로 비유했다.

우마 같은 경우는 겉으로 잘 해주지만 속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겉으로는 국민들을 위한다고 말 하지

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을지 모르는 것을 표현했다.

사마는 사마의 상황으로 비유가 되는데, 진실을 말하고도 높은 사람들 덕분에 사라지거나, 죽어가는 것을 표현했다.

이 작품을 만든 목적은 이 소설을 보고서 한국 신화를 알리기였다. 신화를 현대적으로 다가가서 더 쉽게 잘 알았으면 해서 만들었다. ‘객귀 사마장자와 저승고지기 우마장자’ 신화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후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잘 쓰지는 못 했지만, 다들 즐겁게 봐주셨으면 한다.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시간에 쫓기는 것도 있었지만 글을 거의 처음 써보는 거나 마찬가지로 때문에 어색한 부분을 고치는 게 너무 어려웠다. 그리고 내가 맞춤법을 잘 하지 못 한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았는데 다들 각자 다른 내용으로 알려줘서 헷갈릴 때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부탁하는 건 별로 좋지 않는 거 같았다.

아, 도움을 주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나는 내 스타일이 확 있는 것도 아니고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글을 쓰면서 아쉬웠다. 좀만 더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런지 딱딱 쓰지는 못 했다. 만약 나 말고 글을 쓰는 사람이 계신다면 이럴 때는 나를 믿고 글을 써줬으면 한다. 그 후에 수정은 하면 되니까. 나는 나를 잘 믿지 못 해서 약간은 아쉽게 작품이 나온 거 같다.

뭐, 딱히 쓸 만한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다. 만약 또 소설을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 시간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 나를 믿는 건 잊지 마시고!

햇빛은 좋지만 바람이 찬 2013년 10월 11일
제천간디 전산실 10번 자리에서
도와주신 분들!

뒤에서 지켜주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과 민혁이.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영민쌤.

툭툭되면서도 나 도와준 우리 어레스트 멤버들! 하린, 채은, 민정, 우정,

예림, 효연, 명아, 가원! 우리 이제 컴백하자~ㅋㅋ

딱히 도와준 건 없지만 글 안 써질 때마다 웃기게 해준 신호위반
소설 고쳐준 우리 노년이, 지영언니, 성민이, 정환쌤, 상현쌤, 수진쌤!

그리고 나 청소 못 할 때마다 도와준 우리 방 202호!

갑자기 나타나서 위로 아닌 위로 해준 문장훈오빠.

힘들 때마다 딱 나타나서 위로해줬던 현영언니.

나랑 같이 다락방 쓰느라 힘들었던 나린언니.

우리 반 야식도 만들어주시고, 우리 때문에 언제나 고생하시는 수자쌤,

다들 정말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평온하다

2013. 3학년 논문 작품

2013. 10. 11. 완성

2013. 10. 16. 발표